

第一部

インタビュアーの視点 인터뷰어의 시점

インタビュー調査について

武田里子

このプロジェクトは、調査チーム 10 人でニューカマー韓国人 100 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を集め、それらを文字化して公開することにより、日本人と韓国人の双方で共有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インタビューは、①日本に来日した経緯、②現在何をしていた、③どのような将来構想をもっているのかを中心に、家族関係や日本人との関係、日本社会についての意見などを織り込んで自由に語っていただく手法をとっています。まだ、インタビュー内容をどのように要約するかなど、メンバー間で試行錯誤をしている最中ですが、今回は初めての報告なので、実際にどのようにインタビューを進めているのかについて、私の経験と感想を中心に紹介します。

これまでに私がインタビューしたのは、日本語学校生 3 名と韓国系企業で働く 3 名です。性別は女性 4 名と男性 2 名、年齢は 21 歳から 33 歳、来日時期は 1998 年の方 1 名を除くと 2002 年以降です。6 人に共通しているのは、いずれも日本での生活の第一歩を日本語学校生として歩みだしていることです。日本で学ぶ韓国人留学生は 1 万 9605 人と国籍では中国に次いで 2 番目に多く、留学生 13 万 2720 人（2009 年）の 15% を占めます。韓国人の若い世代は、日本語学校を経て大学や専門学校に進学、あるいは就職するというライフコースを歩んでいる方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最初の日本語学校生は知人に紹介してもらい、次の方は、その方から友だちを紹介してもらうという、スノーボール方式で進めています。初めは面識のない方に上手く会えるかどうか、インタビューがちゃんとできるだろうかと不安でしたが、これまでのところ問題なく進んでいます。インタビューを始める前に、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パンフレットにそって説明をします。インタビューを IC レコーダーで記録させていただ

くこと、文字起こしした内容を再度確認していただくこと、そしてその内容をホームページや紙媒体で公開することを明記した同意書にサインをいただいた後でインタビューを始めます。インタビュー内容は報告書の頁をお読みいただくこととして、ここでは私自身がこ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て印象に残ったことを記します。それは、彼らの家族観や社会観、人生観と私が限られたメディアや文献情報から形成してきた「韓国観」とのギャップでした。ひょっとすると、お話を伺った方々は、日本（海外）で学び働くという意味では、特別な韓国人かもしれません。それでも韓国社会の変化のスピードの速さを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ます。わずか 6 人の物語に過ぎませんが、韓国と日本という 2 つの国を往来しながら、自分らしく生きたいという思いと結婚や家族規範との間で悩み、夢を追い求めて挫折し、そこから再び立ち上がってくる彼らの物語は、当たり前と言えば当たり前ですが、人が生きていくこととは、日々新しい物語を紡ぎだしていくことだと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す。これから紹介していくニューカマー 100 人の物語の中に、これをお読みいただく皆さんにも新たな発見や共感する言葉との出会いがあり、それらがニューカマー韓国人との新たな「顔の見える」関係づくりの一助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初出：『記録集 1』2010 年 5 月）

<論考 / 논고 1>

인터뷰 조사에 대하여

타케다 사토코 (武田里子)

이번 프로젝트는 10명의 조사팀이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인 100명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모아, 문자화하여 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1)일본에 오게 된 경위, 2)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3)미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 일본인과의 관계, 일본사회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이 첫 보고이기에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지, 멤버들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하여 저의 경험과 감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어학교 학생 3명과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시는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성별은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었으며, 나이는 21세부터 33세, 일본에 온 시기는 한명이 1998년이고 나머지는 2002년 이후에 온 분들입니다. 6명의 공통된 점은 전부 일본 생활의 첫 걸음을 일본어학교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9,605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유학생은 132,720명(2009년)중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어학교를 거쳐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 또는 취직하는 등의 라이프 코스를 거쳐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일본어학교 학생을 소개 받아, 그 다음은 그 사람으로 부터 친구를 소개받는 스노볼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식이 없는 사람과 만나므로 잘 만날 수 있을지, 혹은 초면인 저의 인터뷰에 응해줄지 염려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인터뷰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팜플렛의 내용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IC레코더에 녹음하는 것, 문자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나 인쇄물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한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뒤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제 자신이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관이나 사회관, 인생관과 한정된 미디어나 문헌정보를 통해 형성된 저의 “한국관”사이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일본(해외)에서 배우며, 일한다는 의미에서, 보통의 한국인과는 다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언어들 속에서, 저의 스테레오타입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기분 좋게 배신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문자화 하는 중에도 현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와 현장과의 사이에는 결코 매꿀 수 없는 시차가 계속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이 이주해 온 한국인의 이야기를 정중히 기록해서, 다양한 뉴커머 한국인의 존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독할 지는, 읽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희 연구자들의 다음 작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기록한 것은, 비록 6명의 이야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자신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혼이나 가족규범 사이에서의 고민, 꿈을 쫓는 과정에서의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100명의 이야기 안에,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발견이나 공감되는 부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것이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분들과의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판 : 『기록집 1』 2010 년 5 월)

<論考 / 논고 2>

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 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分析

若園雄志郎

本プロジェクトでは、これまでスノーボールサンプリングにより計100名の協力者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ここではインタビューに協力していただいた方々のデータの分析を行う。これによりインタビューから見えてきたことを明らかにし、今後のインタビューの対象や方法について検討を加えるための基礎資料としたい。検討にあたっては記録集にある内容から全ての分析を行ったため、データは全てインタビュー時に基づいている。

<1. 性別・年齢について(表1)>

100名のうち男性は44名、女性は56名であった。男性に対するインタビューがやや少ないが、男女比はだいたい1:1に近づけることができたといえる。年代は10代が1名、20代が46名、30代が34名、40代が18名である。30代及び40代における男女比は概ねバランスがとれているが、20代のみ約1:3となっており、圧倒的に女性へのインタビューが多くなっている。これは後述する協力者の職業と関係している部分が大きいためと考えられ、学生であれば女性が多く、会社員では男性が中心となっている。その他にも女性のインタビュアーによるインタビュー数が多いためでもあるだろう。

<2. 日本滞在期間について>

日本滞在期間は最短で4ヶ月、最長で23年である。平均すると約7年であるが、滞在1年以下が約2割を占めている。

<3. 職業について(表2)>

職業は日本語学校・大学・大学院などの学生が47名、会社員25名、自営業11名、その他韓国語講師、大学助手、主婦、パート・アルバイト、伝道師である。学生のうち女性は2名(10代1名、30代1名)を除いて全て20代であり、これが前述の性別年齢構成に影響しているといえる。すなわち、知人の紹介を基本としたインタビュー手法をとっているため、紹介にあたっては同級生の名前を出す場合が多く、また同時に、学生であれば比較的時間に余裕がありインタビューに協力でき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だろう。

<4. 出身地について(表3)>

首都ソウル出身が36名と最も多く、インタビュー全体の約4割を占めている。次いで多いのは釜山の18名である。首都ソウルおよび韓国国内に6カ所ある人口100万人以上の「広域市」出身を合せると74名となり、インタビュー全体の約7割が都市部の出身であるといえる。ここで、大邱と仁川はほぼ同程度の人口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インタビューでは大邱が出身地だとしたのが10名に対して仁川が出身地だとしたのは1名のみであったというように、有意な差が出たのは興味深いといえる。

ただし、具体的な出身地を教えてもらえる場合もあれば公開を道レベルまでにしてほしいという要望がある場合もあり、また来日直前に居住していた地域を回答する場合もあると考えられるため、数値の若干のずれはあり得るだろう。

<5. 来日動機について>

「〇〇を学ぶため」と明確に話していた場合が多く見られるが、これはインタビュー対象者の学生の割合が多いことが反映している。また、親族などによる誘いやすすめが主な来日動機となっている場合も多く見られた。この中には「日本で親族が経営している企業や商店を手伝うため」という場合や、必ずしも仕事の手伝いのためというわけではなく「日本にいる(行ったことのある)親族が誘った・勧めた」という場合があった。これはアメリカなど欧米への留学を希望していたが、親族より地理的に遠いことを理由に隣国である日本を勧める、あるいはある程度様子のわかる日本を勧め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また、学生の中には「日本語を学んだため」「日本文化に関心があった」など日本や日本語に対する興味関心が来日動機となっていた場合もあった。この場合は特に何が学ば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も明言していない。さらに来日動機が明確ではない、ないしは海外であればどこでもかまわなかったという場合も若干みられた。

<6. 日本・新宿・新大久保について>

日本全体に対しては概ね好感をもっている場合が多いが、新宿に対しては人と人とのつながりが希薄であることが多く指摘された。特に来日時は地方に在住し、その後新宿に移り住んだ場合では、地方では国籍に関係なく(ないしは外国籍であるため)親切に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のに対し、新宿では周囲がお互いに無関心であることが多いように感じ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あるいは警察官による職務質問に代表されるような不快な経験を

することが多いという場合もみられた。

新大久保に対しては韓国籍の方々が多いことに対する受け止め方によって、親しみがあると述べた場合、あまり好きではなく行か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した場合がほぼ半数ずつである。親しみがあると述べた場合は生活上の利便性や交流ができることを理由として挙げており、逆に好きではないと述べた場合は日本語や日本の文化を学びに来ているのでわざわざ韓国人が多いところに行くことはないとのことであった。また、近年の「韓流ブーム」により新大久保が韓国人だけではなく日本人も多く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歓迎する意見があった一方で、商業主義になりすぎているのでもっと韓国の文化を幅広く発信していく場所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意見も散見された。

ただし、インタビュー時の流れによって特に語られなかった場合もあることを付記しておきたい。

＜7. 将来について＞

明確に述べていない場合もあるが、「韓国に戻りたい」「当面は日本にいる」「わからない・考えていない・その他」と述べたのはそれぞれ全体の約3分の1であった。「その他」には、日本と韓国以外の国を挙げる場合や、環境が整っていればどの国でもいいと述べた場合が含まれている。「日本にいる」と述べた中で子どもがいる場合は、やはり子ども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や母語の習得について気がかりであるようだ。

以上、本プロジェクトでは当初の目標通り100名に対してインタビューを行うことができ、協力いただいた一人一人の貴重なお話を伺うことができた。もちろんそれぞれの環境や考えは多種多様であり、数値的な傾向はあくまでも参考とした上で隣人を見つめ直すきっかけになれば幸いである。

また、今回の分析において2011年3月11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の影響については大きくは触れなかったが、それぞれのインタビューでは取り巻く環境の変化や内面の変化が語られている箇所が多く見られる。今後、環境の変化によりどのような変化が生じたかについても分析を加えていくことも必要だろう。

表1 年代（単位：人）

	男性	女性	計
10代	0	1	1
20代	13	33	46
30代	19	15	34
40代	11	7	18
50代	1	0	1
計	44	56	100

表2 職業（単位：人）

	男性	女性	計
学生	16	31	47
会社員	20	5	25
自営業	5	6	11
その他	3	14	17

表3 出身地（単位：人）

地名	人数
ソウル特別市	36
釜山広域市	18
大邱広域市	10
京畿道	9
慶尚南道	5
全羅南道	5
光州広域市	4
大田広域市	3
蔚山広域市	2
慶尚北道	2
江原道	2
仁川広域市	1
全羅北道	1
忠清道	1
延辺朝鮮族自治州（中国）	1

프로젝트의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분석

와카조노 유시로(若園雄志郎)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노볼 샘플링 방법으로 총 100명의 협력자와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는 인터뷰에 협력해주신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인터뷰에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앞으로의 인터뷰 대상과 방법에 관해 검토할 때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검토방법으로는, 기록집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곳에서 서술한 정보는 모두 인터뷰 당시의 상황임을 밝혀둔다.

<1. 성별·연령에 관하여 (표1) >

100명중에 남자는 44명, 여자는 56명이다. 남자에 대한 인터뷰가 조금 작지만, 남녀비율은 대체로 1:1에 근접할수 있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명, 20대가 46명, 30대가 34명, 40대가 18명이다. 30대 및 40대의 남녀비율은 대체로 밸런스를 유지했지만, 20대 만이 약 1:3으로, 압도적으로 여성의 인터뷰가 많다. 나중에 부연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협력자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며, 학생인 경우는 여자가 많고, 회사원인 경우는 남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자 인터뷰 담당자에 의한 인터뷰 수가 많은 것도 기인한다고 본다.

<2. 일본체재기간에 대하여>

일본 체재 기간은 가장 짧게는 4개월, 가장 길게는 23년이다. 평균으로는 7년이지만, 체재 1년이하가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3. 직업에 관하여 (표2) >

직업은 일본어학교·대학·대학원등 학생이 47명, 자영업이 11명, 회사원이 25명, 그 외 한국어 강사, 대학조교, 주부, 아르바이트, 전도사등이다. 학생중에 여자는 2명(10대1명, 30대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20대 이고, 이것이 앞서 서술한 성별연령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인의 소개를 기본으로 한 인터뷰 수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소개에 있어서는 동급생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학생이라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인터뷰에 협력할수 있다 라는 점을 고려

해 볼수 있을 것이다.

<4. 출신지에 관하여 (표3) >

수도 서울 출신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인터뷰 전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부산으로 18명이다. 수도 서울 및 한국국내 6군데 있는 인구100만명을 넘는 광역시 출신을 합하면 74명으로, 인터뷰 전체의 약 7할이 도시부 출신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대구와 인천은 거의 동급의 인구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출신지가 대구인 분이 10명인것에 비해, 출신지가 인천인 경우는 1명뿐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것은 흥미진진하다고 할수 있다.

단지, 구체적인 출신지를 알려주신 경우도 있지만, 공개를 도(道) 레벨까지만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일본에 오기 직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을 답변해주신 경우도 고려되어지므로, 수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을 것이다.

<5. 일본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을 배우기 위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많은데, 이것은 인터뷰 대상자의 학생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 친척등에 의한 권유와 추천등이 주된 동기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중에는 「일본에서 친척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점을 도와주기 위해」라는 경우와 반드시 일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에 있는 (일본에 간 적이 있는) 친척이 권유했다, 추천했다」라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등 유럽으로 유학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친족으로 부터 지리적으로 먼 것을 이유로 이웃나라인 일본을 권유받거나, 또는 어느정도 상황을 알고 있는 일본을 권유받는다라는 점이었다.

또, 학생 중에는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일본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등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흥미관심이 일본에 오는 동기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특히 무엇이 배우고 싶었다 라는 것을 명언하고 있지 않는다. 더우기 일본에 오게된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해 외라면 어디라도 상관없다 라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

<6. 일본·신주쿠·신오오쿠보에 대하여>

일본전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주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연관이 희박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분이

많았다. 특히, 처음 일본에 왔을때 지방에 살다가, 나중에 신주쿠에 옮겨살게된 경우, 지방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또는 외국국적이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았던것에 비해, 신주쿠에서는 주변이 서로간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는 경찰관에 의한 직무질문으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분도 계셨다.

신오오쿠보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의 분이 많은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에 따라 친근감이 있다고 하시는 분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되도록 안가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반반씩이었다. 친근감이 있다고 하신 경우는 생활상의 편리성이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경우는 일본어나 일본문화를 배우기 위해 왔는데 일부러 한국인이 많은 곳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근래의 「한류 붐」으로 인해 신오오쿠보가 한국인 뿐만아니라, 일본인도 많이 오게 된 것을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너무 상업주의적으로 되어버려서, 좀더 한국의 문화를 폭넓게 발신해 나가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여기저기 보였다.

단, 인터뷰를 할때의 흐름에 따라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연해 두고자 한다.

<7. 장래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당분간은 일본에 있겠다」「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그 외」라고 말씀하신분은 각각 전체의 3분의 1정도 였다. 「그 외」에는, 일본과 한국이외의 나라를 들고 있는 경우와, 환경만 갖추어져 있다면 어느나라라도 상관없다는 분도 포함되어있다. 「일본에 있겠다」라고 하신 경우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역시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나 모어교육이 걱정인 것 같다.

이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당초의 목표대로 100명에 대한 인터뷰가 행해졌고, 협력해주신 한분 한분의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물론 각자의 환경이나 생각은 다양각색이며, 수치적인 경향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한 다음, 이웃을 다시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또, 이번의 분석에 있어서는 2011년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각자의 인터뷰에서는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

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앞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덧붙여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표1 연령대 (단위 : 명)

	남성	여성	합계
10대	0	1	1
20대	13	33	46
30대	19	15	34
40대	11	7	18
50대	1	0	1
합계	44	56	100

표2 직업 (단위 : 명)

	남성	여성	합계
학생	16	31	47
회사원	20	5	25
자영업	5	6	11
그 외	3	14	17

표3 출신지 (단위 : 명)

지명	인원수
서울 특별시	36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0
경기도	9
경상남도	5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4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2
경상북도	2
강원도	2
인천광역시	1
전라북도	1
충청도	1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1

<論考 / 논고 3>

統計から見る新宿区の韓国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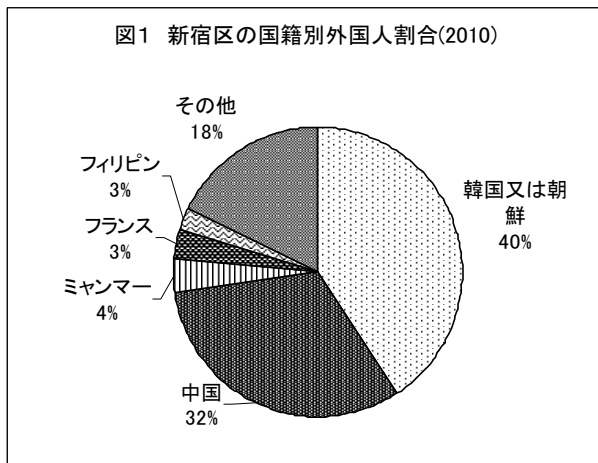
堀内康史

<新宿区の韓国人の概要>

新宿における韓国人¹の存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ろうか。ここでは、統計データを元にして、新宿区における韓国人について見ておきたい。

ここの最初の 2 つのグラフは、2010 年 1 月 1 日現在の外国人登録人口²のデータから作成したものである。

図 1 は新宿区に登録している外国人の国籍別割合を示している。



出典：新宿区,2010,『新宿区の統計（平成 22 年）』より
作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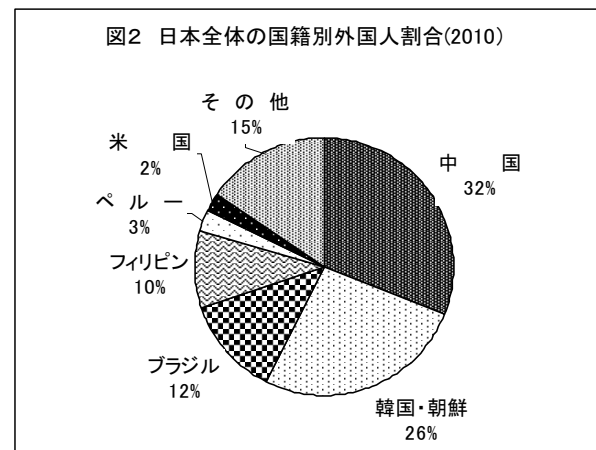
最も多いのは約 40%の「韓国又は朝鮮」というカテゴリーの人々で、実数では 14,332 人である。ここには、戦前・戦中から日本に在るいわゆるオールドカマーとしての韓国・朝鮮籍の人々も含まれているが、後述するように多くはニューカマー

¹ 本稿では韓国人について記述するものの、実際には以下の記述のように、統計データとしては朝鮮籍の人も含まれる。

² ここでは、あくまでも外国人登録に基づく統計であるため、この地域の実際の外国人の存在を直接的に説明するものではない。例えば、当初新宿区で登録したのち新宿区外に転出したものの、転居を届け出ない場合は登録が新宿区に残ることになるなどのズレは少なからず生じる。また、逆に、新宿区以外に登録している者が、働きに來ていたり、就学している場合もあることは留意されたい。

と言われる人々であると考えられる。ちなみに、第 2 位は「中国」で 32%である。この 2 つのグループで実に全体の約 4 分の 3 を占めている。第 3 位からは「ミャンマー」、「フランス」、「フィリピン」と続いていくが、いずれも 5%未満の割合である。

新宿区の国籍別外国人割合と日本全体のそれ(図 2)を比較すると、韓国や中国出身者が多い傾向は同じであるが、全国では「中国」が 32%で 1 位、「韓国・朝鮮」が 26%で 2 位であるが、新宿では「韓国・朝鮮」が 40%で 1 位、「中国」が 32%で 2 位となっている。やはり新宿区には「韓国・朝鮮」の人々が集中していると言えよう。ちなみに全国レベルの統計で、「韓国・朝鮮」の割合は戦後ずっと第 1 位であったが、2007 年に「中国」が取って替わっている。



出典：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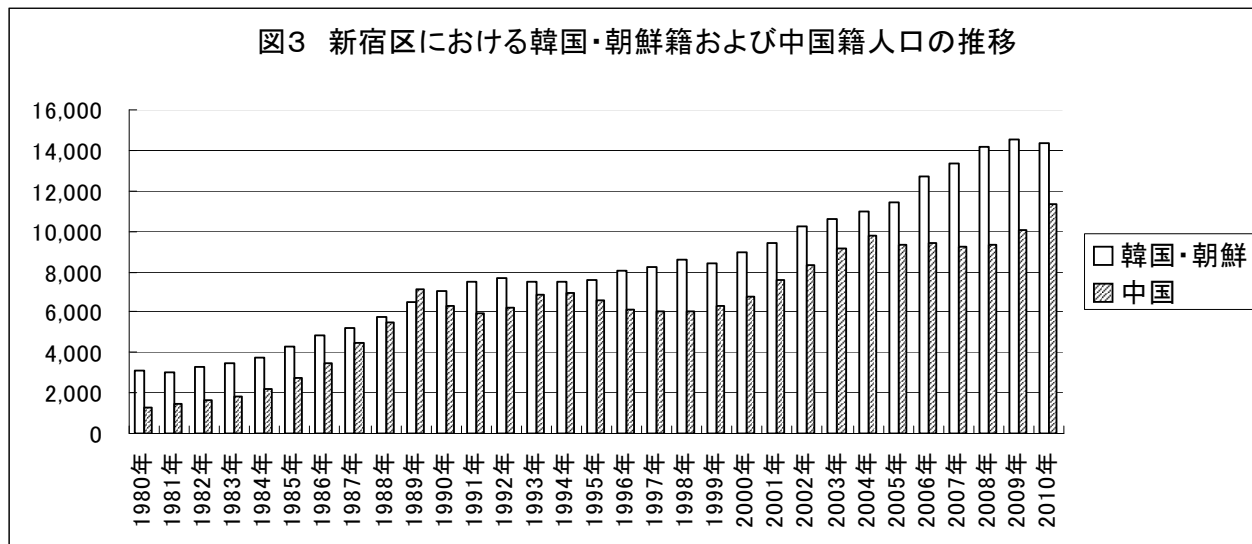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

もう 1 点、全国データとの比較で分かることは、新宿区には「ブラジル」がほとんど見られない点である。ブラジル人は第 2 次産業に従事しているケースが多く、地方都市などに住んでいることが多い。それに対し、韓国人や中国人は様々な地域に満遍なくいるともいえるが、大都市を中心に就学・就業し定住していることが多い。

<時系列に見た韓国・朝鮮籍の人々>

次に時系列のデータを元に、新宿区の韓国人登録人口を概観してみる。図 3 は、新宿区の外国人登録データの内、「韓国・朝鮮」および「中国」の

図3 新宿区における韓国・朝鮮籍および中国籍人口の推移



出典：新宿区,1980-2010,『新宿区の統計（昭和55年～平成22年）』より作成

人口を時系列にグラフ化したものである。この30年間に限定したのは、紙幅の関係ということもあるが、円高を背景に日本に外国人が増え始めたのが80年代後半であったこと、また韓国人の日本への大量流入が89年の韓国の海外旅行自由化によるもの（高1997: 63）、と言われているので、その前後を含めて概観しようという目的でこの期間に限定した。

図3では、80年代後半から「韓国・朝鮮」も「中国」も共に増加し始め、89年に順位が一度入れ替わるものの、その後は現在まで、「韓国・朝鮮」がやや大きな差をつけて1位を保っている。

そもそもなぜこの地に外国人が多いのかについては、複数の要因が考えられるが、一つは歌舞伎町に隣接した地域であることに由来すると考えられている。歌舞伎町には台湾系や韓国系の所有するビルも多く、1980年代にそこで働く従業員たちがこの大久保地区に多く住んでいたというものである（稲葉2008: 56）。そのほか同じ80年代に日本語学校が増えたことなどが、韓国人を含めた外国人増加の要因の一つと考えられている（稲葉2008: 61-62）。この大久保地区が韓国系の人々の集まる地域として、メディアを通して多くの人に認知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2002年のサッカーW杯の時であろう。ここにある韓国料理店が行った駐車場でのパブリックビューイングと、その熱狂の様子はメディアを通して広く紹介されることになった。また2003年から04年にかけてはドラマ「冬のソナタ」が放送され、いわゆる韓流ブームを呼び起こし、韓流グッズを取り扱う店舗が大

久保地域に増加した。このような変遷を経て、現在JR新大久保駅から明治通りにかけてのエリアは、韓国系の店舗・施設が集中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³。

＜ニューカマーの割合＞

なお、これらの「韓国・朝鮮」の人々の内、どの程度の割合がニューカマーなのであろうか？ニューカマーの定義は、「オールドカマー以外の人々」となるので、オールドカマーの定義が必要になる。ここでは統計上のカテゴリーとの整合性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発効（1952年）以前から日本に在住していた旧植民地出身者およびその子孫、としておく。これは現在の滞在資格でいうと「特別永住者」⁴というカテゴリーに相当する人々である。新宿区の資料で⁵、この「特別永住者」が記載されている最も古い滞在資格別の統計は、1991年12月末のものであり、この時1,183人が登録されている。

2010年10月9月末の統計では、「韓国・朝鮮」籍の人は全体で14,540人おり、そのうち「特別永住者」は1,498人である。法律上および統計上

³ この店舗等の看板などによる視覚的な存在感については、本書掲載の藤田ラウンド幸世「生活空間を映し出す多言語景観」に興味深い考察があるので参照されたい。

⁴ この滞在資格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1991年法律第71号）の施行により定められた資格。これ以前は、協定永住者、一般永住者、法126該当者等に分けられていた在日韓国・朝鮮人の法的地位が、この年に特別永住者に一元化された（金2005: 184）。

⁵ 新宿区戸籍住民課所蔵の在留資格別人数調査表。

オールドカマーと言える人々は約 1 割、逆にニューカマーと言える人は約 9 割といえよう。ただし、日本に帰化した人々はもちろんここに含まれていない。このように現在 14,000 人を超える「韓国・朝鮮」登録人口の多くは、やはり近年移り住んできたニューカマーの人々と言えるだろう。

2000 年以降のコンスタントな韓国人の増加は、この新宿（特に大久保周辺）が、韓国系の人々にとって象徴的な意味を持ち始め、さらに多くの人を引き付け、さらにまた象徴的な意味合いが増す、というような循環がで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参考文献】

稲葉佳子，2008，「受け継がれていく新住民の街の遺伝子」川村千鶴子編著『「移民国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明石書店

金敬得，2005，『新版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明石書店

高鮮徽，1997，「韓国人」駒井洋編『新来・定住外国人がわかる事典』明石書店

（初出：『中間報告書』2010 年 10 月）

통계로 보는 신주쿠의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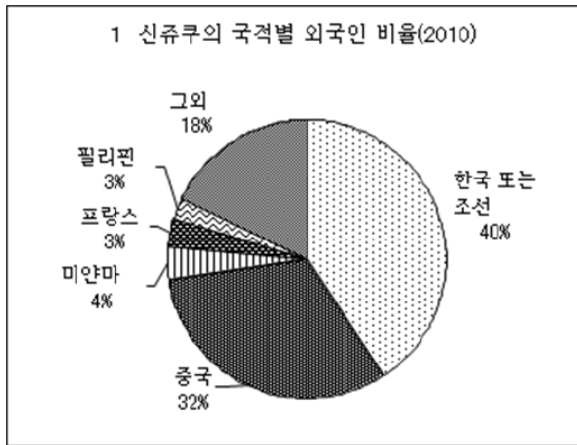
호리우치 타카시 (堀内康史)

<신주쿠의 한국인의 개요>

신주쿠에 있어서 한국인⁶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 여기 서는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주쿠의 한국인에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두 그래프는,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외국인등록 인구⁷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 것이다.

출전1은 신주쿠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출전 1 : 신주쿠,2010,『신주쿠의 통계 (2010년)』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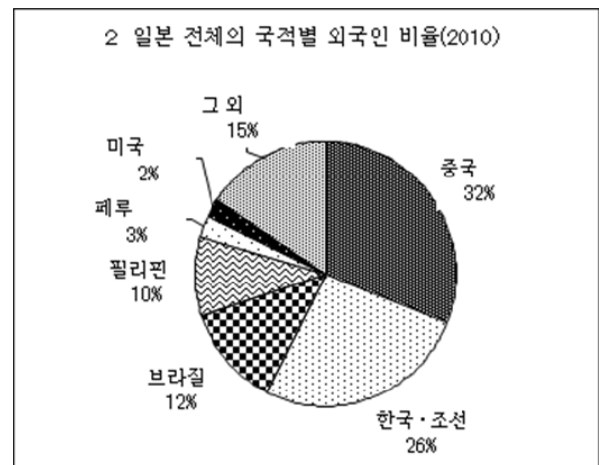
가장 많은 나라가 약 40%로 「한국 또는 조선」이라는 카테고리의 사람들이며, 실제 수로는 14,332명이다. 여기에는, 전쟁전이나 전쟁중 일때 부터 일본에 있었던 말하자면 올드커머로서의 한국·조선 국적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

⁶ 이 원고에서 한국인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래에 기술하듯 통계자료로서는 조선족 분들도 포함되어있다.

⁷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등록에 기초한 통계이므로, 그 지역의 실제 외국인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처음 신주쿠에서 등록한 후 신주쿠 구외로 옮겼지만, 주민이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신주쿠에 남아있는등의 오차가 생기는 일이 적지않다. 또는, 반대로, 신주쿠구 이외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일하기 위해 오거나, 취학중인 경우도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만, 나중에 부연하듯이 많은 뉴커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덧붙여, 제2위는 「중국」으로 32%를 차지한다. 이 두 그룹이 실제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제 3위부터는 「미얀마」、「프랑스」、「필리핀」순이지만, 모두5%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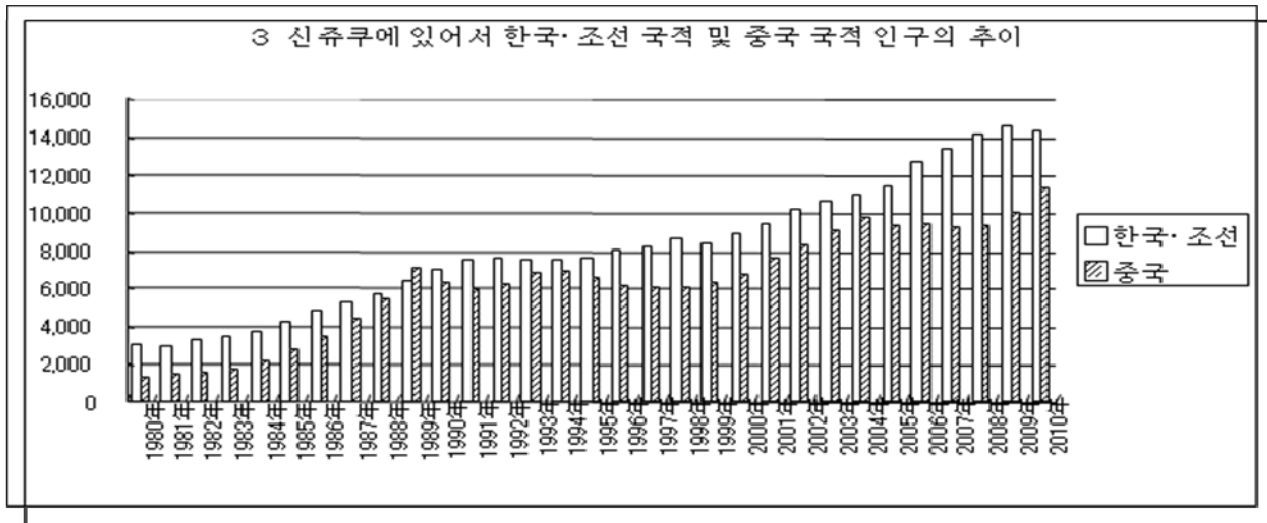
신주쿠구의 국적별 외국인의 비율과 일본전체의 것(출전2)을 비교하면,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가 많다는 경향은 같지만, 전국에서는 「중국」이 32%로 1위, 「한국·조선」이 26%로 2위이지만, 신주쿠에서는 「한국·조선」이 40%로 1위, 「중국」이 32%로 2위이다. 역시 신주쿠구에서는 「한국·조선」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수 있다. 덧붙이자면 전국레벨의 통계에서는, 「한국·조선」의 비율이 전쟁종료 후 계속 제 1위 였지만, 2007년에 「중국」으로 바뀌었다.



출전 2 : 입국관리국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05.html, 2010.10.15 열람)에서 작성

한가지더, 전국자료와의 비교에서 알수있는것은, 신주쿠구에서는 「브라질」국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제2차 산업에 종사하고있는 경우가 많고, 지방도시등에 살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에 비해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다양한 지역에 빈틈없이 있다고도 할수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취학·취업해서 정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출전 3 : 신쥬쿠구, 1980-2010, 『신쥬쿠의 통계 (1980년-2010년)』에서 작성

<시계열적으로 본 한국·조선국적의 사람들>

다음으로는 시계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쥬쿠구의 한국인 등록 인구를 개관해 보겠다. 출전 3에서는 신쥬쿠구의 외국인등록 데이터 중에 「한국·조선」 및 「중국」의 인구를 시계열적으로 그래프화 한 것이다. 근래 30년간에 한정된 것은 지면폭의 관계도 있지만, 엔고를 배경으로 일본에 외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다는 것, 또 한국인이 일본에 대량유입된 것이 89년의 한국 해외여행 자유화에 의한 것(高 1997: 63)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므로, 그 전후를 포함해서 개관하려는 목적으로 이 기간에 한정했다.

출전 3에서는, 80년대 전후부터 「한국·조선」과 「중국」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해서, 89년에 순위가 한번 바뀌어지지만, 그 후로는 현재까지 「한국·조선」이 조금 많은 차를 보이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역에 외국인이 많냐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지는 카부키쵸에 인접해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유래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카부키쵸에서는 대만계 혹은 한국계 분이 소유하는 건물도 많고, 1980년대에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이 오오쿠보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다(稲葉 2008: 56). 그 외에, 같은 80년대에 일본어학교가 증가했다는 것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증가요인의 하나로 생각되어지고 있다(稲葉 2008: 61-62). 이 오오쿠보 지

역이 한국계 분들이 모이는 지역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이다. 이곳의 한국 요리점에서 열었던 주차장을 개방한 대중관람(Public Viewing)과, 그 열광하는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소개되어졌다. 또,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송되어져, 일명 한류붐을 일으켜, 한류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오오쿠보지역에 증가했다. 이러한 변천을 거쳐서, 현재JR신오오쿠보역에서 메이지도우리까지의 영역에 걸쳐 한국계 점포와 시설이 집중하게 된 것이다⁸.

<뉴커머의 비율>

한편, 이러한 「한국·조선」의 사람들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뉴커머일까? 뉴커머의 정의는, 「올드커머 이외의 사람들」이라고 되어있어서, 올드커머의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통계상 카테고리와의 정합성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1952년) 이전부터 일본에 재주하고 있었던 구 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으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의 체재자격으로 말하면「특별영주자」⁹라는 카테고리에 해

⁸ 이 점포나 간판등에 의한 시각적인 존재감에 대해서는 본 원고에 게재한 후지타라운드(藤田ラウンド 幸世)씨의 「생활공간을 비추어내는 다언어경관」에서 흥미진진하게 고찰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길 바란다.

⁹ 이 체재자격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준된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당하는 사람들이다. 신주쿠구의 자료로¹⁰、이 「특별영주자」가 기재되어있는 가장 오래된 체재자격별 통계는 1991년12월 말의 것으로, 그 때 1,183명이 등록되어져있다.

2010년10월말 통계에서는 「한국·조선」국적의 사람은 전체의 14,540명으로, 그 중에 「특별영주자」는1,498명이다. 법률상 및 통계상의 올더커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약 1할, 반대로 뉴커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9할이라고 할수있다. 단,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같이 현재 14,000명을 넘는 「한국·조선」등록인구의 대부분은, 역시 근래에 이주해 온 뉴커머 분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2000년 이후의 항상적인 한국인의 증가는, 이곳 신주쿠(특히 오오쿠보 부근)가 한국계의 사람들에게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고, 거기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증가하는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稲葉佳子, 2008, 「계승되어져가는 신주민의 거리의 유전자」, 川村千鶴子편저 『이민국가일본과 다문화공생론』 아카시서점

金敬得, 2005, 『신판 재일코리언의 아이덴티티와 법적지위』 아카시서점

高鮮徽, 1997, 「한국인」駒井洋편 『신래(新来)/정주(定住)외국인을알수있는사전』 아카시서점

(초판 : 『중간보고서』 2010 년 10 월)

특례법」(1991년 법률제 71호)의 시행에 의해 정해진 자격. 이 이전에는협정영주자, 일반영주자, 법 126 해당자 등으로 분류되어져 있었던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지위가 이 해에 특별영주자로 일원화되었다(金 2005: 184).

¹⁰ 신주쿠구 호적주민과 소장의 재류자격별 인원수조사표.

多文化空間での子育てをめぐるナラティブ

李 曄 鉉

日本社会は、1990年代以後多くのニューカマーを受け入れることで、多国籍・多文化・多民族化が加速され、現実には様々な問題と直面することとなる。その一つとして、地域社会で共に生きる外国にルーツをもつ親子は、言語・文化の異なりによってコミュニティの中で多様な問題にぶつかりつつも、その社会の一員として絶えず努力しつつ、毎日の生活に奮闘している。

外国にルーツをもつ家庭は地域社会で孤立されがちで、親にとっても多文化養育空間は、葛藤が続く負の場としてのイメージが多い。一方、ホスト社会との肯定的な関係を形成することによって、積極的に社会に参加するようになる側面も無視できない部分である。つまり、ホスト社会からの除外による孤立感に落ちていた外国にルーツをもつ母親が、日本語の識字を得ることによって養育への自信感を回復すると同時に自分の状況に関連する学習を通じて、ネガティブな思考が主体的に変革していく「意識化」を起こす。これこそ、パウロ・フレイレがいう識字を通した女性のエンパワーメントであり、尊厳の回復にも大きな役割を担当する側面として解釈できる。このような多文化空間で外国にルーツをもつ親子をめぐる多様な葛藤と文化変容の様相は多文化社会での人間形成が複雑で総合的な過程であることを立証している。

ドロシ・ロー・ノルトは「子どもが育つ魔法の言語」で、まず、親自身がその見本になるべきであって、もちろん見本といって完璧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困難におちいった時に負けず直面することで十分だという。その人が何を持っているかによって、その人の価値を決めるのではなく、子どもは親が自分をありのまま愛してくれる姿から重要な価値を学ぶ。子どもが成長した後には、もう親の存在を必要としないので対話は難しくなる。親として何を話すかを考えるのではなく、子どもとともに何をするか、すなわち、行動で親の価値観というのが伝わるのである。

コーエンがいう海外で生活しながら、強い集団

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続している現代のディアスポラと呼ばれる我々たち。移民として日本社会で出産・育児をしている親にとって母語が持つ意味は特別である¹¹。二重または多言語環境で子どもにどのように母語を教えるか、その方法をめぐる悩みは共通の課題である。特に、児童期を移民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個人的には移動する時の言語発達段階と言語及び文化問題を内包しており、社会の中では環境としての言語使用、つまり、家庭と学校が取るべき役割の重要性が問題化される。この時、ホスト社会の外国人に対する態度が重要なポイントとして作用する。ここで、日本人・外国人という二項対立的な思考ではなく、一人一人が異なることが当たり前のハイブリットな社会を支持する多文化教育の重要性が再び認識されるのである。

東京で子どもを育てているニューカマーの教育観に影響を与えている要因に関する研究¹²から、韓国人ニューカマーたちは日本での子どもの養育状況を理想的な形から脱皮した否定的な状況として認識し、摩擦の場として解釈する傾向をみせている。同時に、子どもの養育の経験をこのような摩擦回避と疎外感の緩和という二つの観点から見ているという面談の分析結果が出ている。

親自身の言語教育及び学習と関連した多用な経験から一定の教育観を形成しており、その教育観の特徴として各言語を教育することで特定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獲得・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る。そして、多くの言語を堪能にこなすことによ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選択幅も広められるのである。その考えの背景として、言語を各社会のなかでの精神的・経済的に自立していく手段とみなし、子どもにその手段を獲得させるための学習に力を入れている。つまり、日本社会での主流言語である日本語の習得は当たり前で、自然に身につくものと思う反面、母語である韓国語の

¹¹ 国際母語デー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は、毎年2月21日で、ユネスコが1999年に制定した。言語と文化の多様性、多言語の使用、それぞれの母語を尊重することを推進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

¹² 拙稿、渡辺幸倫、帆足哲也共著、「多文化社会における養育者の教育観の形成—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を対象とした探索型集団面接から—」、日本国際教育学会紀要、平成22年10月発行予定。

習得は親の責任のように感じながら、個別教育として力を注ぎ、そして、韓国国内情勢の影響もあり、世界語としての英語の習得に悩んでいるのが現実である。

なにより、韓国語教育が持つ象徴性を見ると、親子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として韓国語をあげている。すなわち、家族を社会化のための初め場と考えた際、韓国語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となり、親戚及び宗教的ネットワークなど場所と国を問わず韓国語を話せることで韓国語社会との交渉も可能になることを含んでいる。また、韓国語教育には、言語教育を通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世代間の同一性を確保するという点で、民族性の象徴である韓国語を話せることで、家族と民族グループへの所属意識が芽生えるという面も重要視されている。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の確保という観点から、単純に言語が通じ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言語の実質面も重視される。つまり、異国で生活する家族特有の言語である韓国語・日本語・英語が混ざった一種のクレオール語¹³のような言語が発生するという事象も看過できない現象である。

以上の現象は、二回にわたる記録集の中でも、子育てをめぐる話からその一面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

ニューカマー韓国人たちは、異国での子育てをめぐる多くの葛藤を抱えている。代表的な多文化空間である新宿という地域は、子育てにおいても多文化養育空間であり、そこに居住をきめるとする理由は様々であるが、そのなかでも子どもの教育に関連された部分も多くを占めている。東京韓国学校を始め、多くの韓国人コミュニティが存在しており、特に韓人教会という宗教的な面と母語を含めて多くの学習補助機関などへのネットワーク作りができることは無視できない部分である。

一方、親の教育観によって、あえて新宿を遠ざけるケースもある。知識中心の教育方針に力を注ぐ韓国式の教育の代わりに、全人教育に力を入れている日本の公教育、あるいはインターナショナル

ル・スクールを選ぶケースもある。歓楽街と近隣している新宿から遠ざけて、のびのびとした住宅地を選ぶケースもある。これらに共通することは、親として最善の教育を子どもに与えたいというのが特徴である。

このように社会との交渉過程で、親が描く立派な韓国人として成長することが期待されつつ、韓国語の駆使だけでなく、韓国文化・情緒を理解する韓国人として世界各国で活躍す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つ立派な韓国人を育てることが親の役割だと意識している。

そのほか、バーカー¹⁴がいうバイリンガルの子どもにとって母語教育の重要性と教育達成、すなわち、学校教育を通じた学力不振・学習の遅れなどへの影響を心配する親心から母語である韓国語教育への重要性が再び認識される。

子どもたちが小さいころから多言語、多文化、多民族という多様な環境のなかで育ちながら、自己形成していくなかで多文化への柔軟な考えと偏見や先入観のない価値観、ありのままの人間相互関係を重要視しながら、ともに成長していく社会を目標に、協動的実践を図るべきである。移民社会で韓国人ニューカマーのエンパワーメントを支持する場が新宿のコミュニティのなかで存在し、これらの教育ニーズを充足していることは注目すべきである。日本社会において多文化共生の実現可能性を提示し、エンパワーメントしていく外国にルーツをもつ親の存在は、きっと日本の社会を変化していく力になるだろう。

(初出：『中間報告書』2010年10月)

¹³ 意思相通ができない異なる言語の商人たちの間で自然に作り上げられた言語で、その子どもたちに母語として形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言語を指す。

¹⁴ Colin Baker 著、ジョン・ブヨン訳、『A Parent's and Teacher's guide to bilingualism』、ネクサス出版、2006年。

다문화공간에서의 자녀교육을 둘러싼 내러티브

이 호 현

일본사회는 1990년대 이후 많은 뉴커머(newcomer)들을 맞이함으로써, 다국적·다문화·다민족화가 가속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외국에 루트를 가진 부모자녀는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해 커뮤니티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그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현실의 무게감속에서 매일매일 분투하고 있다.

외국에 루트를 가진 가정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쉽고, 부모에게 있어 다문화양육공간은, 갈등이 계속되는 負의 場으로서의 이미지가 많다. 반면, 호스트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참가를 하게되는 측면 또한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즉, 호스트사회로부터의 소외에 의한 고립감에 빠졌던 외국에 루트를 가진 엄마가, 일본어 문해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양육에의 자신감회복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에 관련된 학습을 통해, 소극적인 사고가 주체적으로 변혁해 가려고 하는 「의식화」를 초래하게된다. 이것이야말로 파울로 프레이레가 말하는 문해교육을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이며, 존엄회복에도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문화양육공간에서 외국에 루트를 가진 부모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문화변용의 양상들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간형성이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과정임을 입증한다.

도로시·로·노르트는 『아이가 자라는 마법의 언어』에서, 먼저 부모 자신이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물론 본보기 라고 해서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빠졌을 때 굴하지 않고 직면할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모습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배운다. 어린이가 성장한 후에는 이미 부모의

존재를 필요치 않으므로 대화가 힘들다. 부모로서 무엇을 말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즉 행동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전달되는 것이다.

코옌이 말하는 해외에 살면서 강한 집단 아이덴티티를 지속시키고 있는 현시대의 디아스포라로 일컬어지는 우리들. 이민으로서 일본사회에서 출산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있어 모어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중 또는 다(多)언어 환경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모어를 가르칠까, 그 방법을 둘러싼 고민은 공통된 과제이다¹⁵. 특히 아동기를 이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동할때의 언어발달 단계와 언어와 문화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내포하며, 사회속에서는 환경으로서의 언어사용 즉 가정과 학교가 취할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때 호스트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여기서, 일본인·외국인 이라는 이항대립적인 사고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이 다른것이 당연한 하이브리드(hybrid)한 사회를 지지하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는 현실이다.

동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뉴커머의 교육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¹⁶에서, 한국인 뉴커머들은 일본에서의 자녀양육 상황을, 이상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한 부정적 상황과 마찰의 장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자녀양육경험을 마찰회피와 소외감의 완화 라는 두 관점으로 보고있다는 면담분석결과가 나왔다.

부모 자신의 언어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으로 일정의 교육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교육관의 특징으로서 각 언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특정 아이덴티티를 획득·형성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언어구사가 가능함으로 인해 아이덴티티의 선택폭이 넓어질수 있다고 생각하

¹⁵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 매년 2 월 21 일로, 유네스코에서 1999 년에 제정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다언어의 사용, 그리고 각각의 모국어존중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¹⁶ 줄고,와파나베유끼노리, 호하시테츠야 공저, 「다문화사회에서 양육자의 교육관 형성-신주쿠의 뉴커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형 집단면접을 통해서-」, 일본국제교육학회기요, 2010 년 10 월 발행예정.

고 있다. 그 생각의 배경으로는 언어를 각 사회 속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해나가는 수단으로 보며, 자녀에게 그 수단을 획득시키기 위한 학습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사회에서 주류언어인 일본어의 습득은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모어인 한국어의 습득은 부모의 책임으로 보며, 개별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하며, 또한 한국국내의 정세에 영향 입어, 세계어로서의 영어습득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면,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한국어를 들고 있다. 즉 가족을 사회화의 첫 장으로 볼 때, 한국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며, 친척 및 종교적 네트워크등 장소와 나라를 불문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사회와의 교섭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는, 언어교육을 통해 아이덴티티의 세대간 동일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민족성의 상징인 한국어를 구사함으로써, 가족과 민족그룹에 대한 소속의식이 생겨난다는 면도 중요시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보라는 점에서, 단순히 언어가 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언어의 실질적인 면이 중시된다. 즉, 이국에서 생활하는 가족특유의 언어 즉 한국어·일본어·영어가 섞인 일종의 크레올어¹⁷와 같은 언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현상들은, 두 번의 기록집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엿볼 수 있었다.

뉴커머 한국인들은, 자녀양육 단계에서 많은 갈등들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인 신주쿠라는 지역으로 한국인 부모들이 거주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특히 한인 교회라는 종교적인 면

과 모국어를 비롯한 학습보조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쉽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교육관에 따라서 일부러 신주쿠를 멀리하는 케이스도 있다. 지식교육 중심인 한국교육 대신, 전인교육 중심인 일본공교육 혹은 인터내셔널 스쿨 쪽을 택하는 경우와 유흥가를 끼고 있는 신주쿠에서 떨어진 주택지를 선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부모로서 최선의 교육을 자녀에게 부여하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이 사회와의 교섭과정에서, 부모가 그려내는 「훌륭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한국어 구사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정서를 이해하는 한국인으로서 세계각국에서 활약하는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훌륭한 한국인을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 의식하고 있다.

그외, Colin Baker가 말하는 Bilingual의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모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달성, 즉 학교교육을 통한 학업부진 등에의 영향등을 우려하는 부모마음에서 모어인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지되어진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언어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다양한 환경속에서 자라며, 자아형성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다문화에의 유연성과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가치관, 있는 그대로의 인간 상호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한다.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들의 Empowerment를 지지하는 주된 場이 신주쿠의 커뮤니티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일본사회에서의 다문화공생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Empowerment 해가는 외국에 루트를 가진 부모의 존재는 분명 일본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 이다.

(초판 : 『중간보고서』 2010 년 10 월)

¹⁷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다른 언어의 상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언어로, 그 자녀들에게 모어로써 형성되어진 언어를 가리킨다.

一心の癒しの場所、コリアンタウン 私のナラティブ：自分と新宿区との関わり

呉 世蓮

私は日本に留学に来て今年で7年目になります。7年間の留学生活を語るには、新宿区との関わりを欠かせ語ることはできません。なぜなら学校、住居、そして人との関わりのおかげで、東京都心の西部に位置する新宿区で行われているからです。つまり新宿区は、私にとって生きている歴史のそのものなのです。

なかでも新宿区というと、一般的に新宿駅を中心とするエリアが思い浮かぶと思います。東京都庁をはじめとする超高層ビル群が広がる西新宿、大規模な商業施設が並ぶ新宿、夜はとても派手な町となる歌舞伎町、韓国系ショップが並ぶ大久保など、このエリアは「新宿区の代表」と呼ぶにふさわしい個性豊かな顔を持っています。

特に、私は「新宿区の代表」の中の、大久保、JR 大久保駅・新大久保駅を中心に7年間の日本での留学生活を過ごしています。

日本一の「コリアンタウン」と称される JR 大久保駅・新大久保駅の周囲は、江戸時代までは農村であり、明治時代になるとつつじの景勝地として近郊から多くの観光客が訪れていたそうです。終戦後に在日コリアンなどが集まるようになり、1970年代頃から韓国料理店が少しずつ営業をはじめ、現在は韓流スターやドラマなどの人気により、日本各地から遊びに来る観光客も増えたそうです。

実際、私が来日した当時（2004年）と現在の新大久保の周囲を比べると韓国人だけではなく、日本人の観光客も著しく増えたことがわかります。以前は新大久保の韓国料理屋さんに入ると韓国人が殆どで、まるで韓国にあるお店に入ったかのように、店員さんから韓国語で話し掛けられたりもしました。最近は日本人のお客さんも増え、お店によっては日本語で対応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こちらから韓国語で「アン

ニョンハセヨ」（こんにちは。）と挨拶をしながら、お店に入ることも多くなりました。日本にいる韓国人として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

今は、韓流のブームやコリアンタウン、大久保の町の人々のおかげで町全体が活性化されていますが、昔は治安があまりよくないというイメージから、日本人も大久保・新大久保に行くことを控えていた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韓国人として韓国の文化、特に食文化を知ってもらうために日本人の友達をお家に招き、韓国料理を作って食べさせたことがあります。初めて韓国料理を食べた友達は韓国料理が大好きになり、私と一緒に新大久保に行ってみようと言ってくれました。新大久保に初めて行った友達は日本の中の韓国を体験し、今はすっかり韓流ファンとなりました。

日本と韓国の文化交流の場としての新大久保。日本にしながら韓国の食べ物が懐かしくなると、お袋の味を探しに訪れる新大久保。食べ物から癒されるの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町の雰囲気から韓国にいる気分となり、コリアンタウン、新大久保にいただけで心が癒され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ここ、JR 大久保駅・新大久保駅の一帯でグルメなウォーキングもたまにはいいかも知れません。

参考資料

新宿区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city.shinjuku.lg.jp> (2010年8月12日閲覧)

（初出：『中間報告書』2010年10月）

—마음의 휴식처, 코리안타운— 나의 내러티브:신주쿠구와의 관계

오 세연

저는 일본에 유학 온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7년간의 유학 생활을 이야기 하려면, 신주쿠구와의 관계를 빼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는곳,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동경 도심의 서부에 위치한 신주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주쿠 지역은 저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주쿠 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경 도청을 시작하여 초고층 빌딩들이 펼쳐지는 서(西) 신주쿠, 대규모인 상업시설이 즐비한 신주쿠, 밤에는 매우 화려한 거리가 되는 카부키쵸, 한국계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오오쿠보등, 이 지역은 「신주쿠구의 대표」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개성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신주쿠구의 대표」중의 신오오쿠보, JR오오쿠보역・신오오쿠보역을 중심으로 7년간의 일본 유학생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일의「코리안 타운」이라고 칭하는JR 오오쿠보・신오오쿠부의 주변은, 에도시대까지는 농촌이었고, 메이지시대에는 철쭉의 경승지(景勝地)로서 근교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2차대전후, 재일동포등이 모이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한국요리점이 조금씩 영업을 시작하고 현재는 한류스타와 드라마 등의 인기로 인해, 일본 각지에서 놀러 오는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일본에 온 당시(2004년)와 현재의 신오오쿠보의 주변을 비교하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한 것을 현저하게 알수 있습니다.이전에는 신오오쿠보의 한국요리점에 들어 가면 한국인이 대부분이었고, 마치 한국에 있는 가게에 들어 간 것처럼 점원으로부터 한국어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손님도 늘었기 때문에 가게에 따라서 일본어

로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류 붐과 코리안타운,오오쿠보의 지역 사람들 덕분에 거리 전체가 활성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일본인도 신오오쿠보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 특히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인 친구를 집에 초대하여, 한국요리를 직접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요리를 먹은 친구는 한국요리를 좋아하게 되어 저와 함께라면 신오오쿠보에도 가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신오오쿠보에 처음으로 간 친구는 일본인의 한국을 체험하고, 지금은 완전히 한류 팬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신오오쿠보.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의 음식이 그리워질 때, 어머니의 맛을 찾으러 방문하는 신오오쿠보. 음식으로 인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로 부터 한국에 있는 기분을 느낄수 있어서 여기 코리안 타운, 신오오쿠보에 있는 것 만으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JR오오쿠보역・신오오쿠보역의 주변을, 가끔은 미식가처럼 산보해 보는 것도 멋있지 않을까요.

參考資料

신주쿠구 공식 홈페이지

<http://www.city.shinjuku.lg.jp>

(2010.8.12 열람)

(초판 : 『중간보고서』 2010 년 10 월)

生活空間を映し出す多言語景観 —新宿区大久保地域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 に関わる言語景観を中心に

藤田ラウンド 幸世

新宿区は、日本のゲートウェイともいえる、首都東京の中心にあります。本稿では、2009 年から 2010 年の一年間に撮った大久保地域の画像をもとに、言語景観（本報告書のキーワードを参照）に映し出された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人たちの生活空間、また、大久保地域の国際化と多民族化を考えることにします¹。

1. 多言語背景を持つ「新宿」の言語景観

「日本」の言語景観について、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 10)らは、1960 年以降の先行研究から浮かび上がる、言語と社会の複雑な関わりを可視化する顕著な要素として「西欧化」、「国際化」、「多民族化」を挙げました。日本全体に英語やその他の西洋言語が言語景観において可視性を高めたことを「西欧化」、1980 年代以降、日本人を対象に装飾的な外国語使用をしているのではなく、増加してきた外国人のための多言語表示を指し、最初から英語とローマ字表記の日本語が併記された、ローマ字と英語の可視性が公的表示に及んでいること、また、中国語と韓国・朝鮮語、点字などが表示に加わった傾向を「国際化」、さらに日本に在住する外国人が主にコミュニティ内の情報交換のために掲げる表示への発展を「多民族化」として挙げています。

¹ 初めに補足をしますが、公共空間にみられる景観として、路上の店や広告看板などに現れた言語景観を筆者の眼で切り取っていきますが、街の景観としての全体は、当然のことながら社会言語の日本語に占められています。本稿の目的は、日本語がマジョリティである街の、公共的空間に現れた「多言語景観」を切り取っていくわけですので、大久保地域全体が多言語景観だけに覆わ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に留意を促しておきます。その上で、現在の多民族・多文化の共存として現れる多言語景観を分析していきます。

「新宿区」に関する言語景観には、山手線沿線上の駅前通りの看板から見る多言語の言語景観（バックハウス 2005, Backhaus 2007）と関西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の言語変容との比較による、韓国・朝鮮ニューカマーの移民言語の表れとしての言語景観（金美善 2009）があります。後者の金は、コリアンに関する言語景観の中から、可視化されたハングル表示の増加に関するグローバル化の影響を指摘し、言語景観の中から、①日本で進行中の一連の多民族化現象、②韓国からの旅行者数の増加、③日本における社会現象としての「韓流」ブームの影響の三つの要素を導きだしました（金美善 2009:194）。金は、また、コリアンニューカマーによって築きあげられたコリアンタウンを、東西では、大久保駅周辺から明治通り、南北では歌舞伎町、職安通りから大久保通り周辺までの地域とし、そこでの「新宿」のニューカマーによるエスニック性の高まりを挙げています。金が映し出した「新宿」の言語景観と本稿とは、研究手法や目的、対象とする地域、研究期間が異なるので、一概には比較できません。フィールドワーク調査が基本となる本稿の言語景観では、「どのような」プロセスで多民族化が起き、韓流ブームが影響し、生活をしているのか、その一端を映し出す事を目的とします。

1.1 調査地と調査期間

調査地： 新宿区百人町 1・2 丁目、
大久保 1・2 丁目
調査期間： 2009 年 9 月～2010 年 8 月²

1.2 新宿区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

2010 年現在、新宿区に在住する区民のうち、約 11%が外国出身者となっています。2010 年 6 月

² 2009 年 9 月 25 日(61 枚)、2010 年 3 月 18 日(26 枚)、4 月 16 日(5 枚)、5 月 9 日(5 枚)、8 月 3 日(62 枚)の合計 5 回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 159 枚の写真を撮影しました。数のばらつきは、第一回目と第五回目は言語景観のため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したが、他の回は新しい景観の出現だけを記録したためです。

30 日時点の新宿区の統計³によると、新宿区の外国人登録者数は 35,583 人で、その内訳は韓国・朝鮮 14,539 人、中国 11,793 人、ミャンマー1,247 人、フランス 1,063 人、米国 896 人、フィリピン 867 人、ネパール 861 人、タイ 679 人、英国 428 人、カナダ 245 人、その他 2,965 人です。2010 年 6 月 1 日の統計⁴によると、国籍数の合計は 117 カ国となっています。まずは、統計の数値上で多民族化が顕著に表れてきます。

新宿区の在留資格⁵（2010 年 6 月 30 日時点）から「特別永住者」数を国籍別にみると、韓国・朝鮮 1,496 人、中国 30 人、米国 11 人、フランス 2 人、英国 2 人のみとあります。これが意味することは、新宿区で最も外国人登録者数が多い、韓国・朝鮮国籍者の約 10%は「日本が朝鮮半島を植民地にしていた時代(1910～1945)前後に来日したオールドカマー(生越 2005)」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⁶。オールドカマーとニューカマーに関して、藤井(2005)は、前者を(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いて、あるいは、戦後、朝鮮半島からきた人々や日本で生まれ育った子孫、後者を 1989 年の韓国の海外渡航自由化を機に増加し、主に留学生、駐在員、日本人や永住者の配偶者として若い世代、がそれぞれ中心になっていると定義しています。加えて、金美善 (2005:191)は、2006 年の日本の外国人登録者数が約 208 万人の中で、日本国内のコリアンは 598,219 人、そのうちオールドカマーが約 47 万人、ニューカマーが約 14 万人だと概算しています。

新宿区は、日本の歴史に深い関わりを持つコリアン（歴史的移動者）、現在の新宿区で最も大きいエスニック・グループとなったニューカマー韓国人（現在の移動者）、さらに、日本社会のマジョリティとしての日本人(ホスト社会の居住者)が共に住まう居住地としての一面を持ち合わせ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2. 大久保地域の言語景観

まずは、大久保地域を図 1 で鳥瞰します。ここでの大久保地域は、JR 新大久保駅(写真 1, 2)を起点に、JR 大久保駅から JR 新大久保駅までを「大久保通りの西（写真 3, 4, 5）」、JR 新大久保駅から明治通りまでを「大久保通りの東（写真 6, 7, 8, 9）」、そして大久保通りと職安通りの縦軸空間の東側を「大久保生活圏（写真 10, 11）」とします。

2.1 駅の構内に見られる国際化と多民族化

図 1 の写真 1 は、JR 山手線の新大久保駅の写真です。写真 2 には、駅構内の改札口近くにある日本語と英語の二言語併記の駅周辺の案内図があります。JR の案内図がなぜ日英の二言語併記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疑問には、バックハウス(2009:147)が行った公的表示の調査があり、「国際化に対応するために、情報の表記は『和英併記』を原則とする（東京都情報連絡室 1991）」という東京都の指針と、東京都交通局が 1997 年に旅客案内標識の設置マニュアルに挙げた「国際化」が答えとなるでしょう。1990 年代に増加した表記は日本語と英語もしくはローマ字併記ですが、英語以外の外国語を含む表示については、バックハウスは 1997 年から中国語と韓国・朝鮮語におけるゴミ収集の説明表示がされた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バックハウス 2009:161)。1990 年代の東京都の施策である日英の二言語併記に、日本国内での「国際化」の概念が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JR 新大久保駅の案内図にもこうした「国際化」が反映しているものでしょう。

³ 新宿区役所戸籍住民課発行資料(2010/07/06)。

⁴ 新宿区ウェブサイト

<http://www.city.shinjuku.lg.jp/content/000067408.pdf>(2010/9/30)

⁵ 脚注 3 上の資料。

⁶ ただし、日本に帰化をした在日コリアンもいますので、この数値はあくまでも外国登録者数にすぎないことに留意を促しておきます。

図1. 地図上に見る大久保地域⁷



写真1 JR 新大久保駅

写真2 JR 新大久保駅の案内板

写真3 エステティックサロン



写真4 韓国料理店と薬局



⁷ 新宿区地図の出典は、新宿区ウェブサイト
<http://www.shinjuku.go.jp/> (2009/12/24)

写真5 八百屋



写真6 韓流グッズ店



写真7 韓流グッズ・料理・カフェのあるビル



写真8 美容室



写真9 薬局



写真10 産婦人科クリニック



ところが、写真 2 をよくみると、JR 駅構内という公共的空間に、二言語併記と同時に、商業的な広告が二言語併記の案内図を取り巻く形で多言語景観を作り出しています。案内板上の広告は、日本語（ひらがな、カタカナ、漢字）の表記、加えて、韓国語、英語、タイ語、中国語と日本語を含めて五言語、表記の種類で挙げれば七種類の表記文字が見られます。

もうひとつの左横の広告は、韓国語をフォントと色で象徴的に配しながら、日本語表記の一つでもあり、中国語でもある漢字を用いて日本語・中国語の漢字の読み手を意識し、他にひらがな、カタカナの入った日本語の文、さらに店名の英語表記も加えた、四言語、五表記となっています。前者の質屋の広告板は多言語使用者を対象とし、後者の韓国スーパーは主に日本人、韓国・朝鮮人、中国人、また、駅前であるという立地条件を考えると「国際語」の英語表記は、英語使用者にアピールをすると同時に装飾性を持つものかもしれません。

2.2 大久保通り周辺の店（1）：「多民族化」の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JR 新大久保駅は大久保通りに面しています。大久保通りの西側では、新大久保駅周辺に、多言語表記の中でも日本語の表記が強調され、外国語が飾りとして表出されている多言語景観が顕著に見られます。具体的には、「西欧化」では、フランス語を併記した喫茶店やエステティックサロン(写真 3)、「国際化」では、ローマ字表記を併記した飲食店や英語のみで表記をしているファーストフードの店、また、エスニック料理店の韓国・中国の飲食店が韓国語表記や中国語表記で多言語景観を作り出しています(写真 4)。

多言語が三言語、四言語と併記されている「多民族化」の言語景観が見られる地区は、それぞれ異なる民族や言語話者の人たちが日々、その場で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を表わしているともいえるでしょう。こうした地区で商売をする場合は、音声を表記することが目的の、意味を表わさない「ローマ字表記」、「西欧化」、「国際化」の表記だけでは十分ではない場合もあります。多民族の人たちをお客として考えた場合、店の名前や店の意味だ

けを翻訳して一方的に多言語表記をするだけではなく、多民族の人たちに「いらっしやいませ」と、呼びこむ挨拶に相当するアピールを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写真 5 の八百屋の表看板には、日本語表記（漢字・ひらがな）を中心に、英語・韓国語・中国語（繁体字）の多言語表記、それに加えて、漢字の「笑顔 元気」というメッセージが配されています。メッセージは、漢字を共通の表記として、中国語や韓国語使用者のお客にも向け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異なる民族の人が共存することを意識し、自らメッセージを発信して、その視覚的な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表れた看板といえるでしょう。これは情報を多言語表記で伝達する「国際化」から、多言語使用者に書きことば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アピールする「多民族化」にシフトをしている例として挙げ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2.3 大久保通り周辺の店（2）：日韓表記と「国際化」

大久保通り東には、2002 年のワールドカップの日韓共催以降、韓国語やハングルの経済価値を高めた韓流ブームを体現している多言語景観が、新大久保駅周辺に可視化できます。

写真 6 は、K-pop(韓国の歌謡曲)の音楽と共に目に飛び込んでくる、韓流ブーム関連のグッズを売る販売店の一つです。店の外側には、両国の文化交流を表わす韓国と日本の国旗が交差した飾りものが象徴的に掲げられ、両国の文化交流の前向きなメッセージが送られています。これは、両国の文化交流を韓流ブームと結びつけたメッセージでもあるでしょう。しかし、国旗のさらに上の看板の表記は日本語だけです。

店の中に入ると、店員同士のおしゃべりは韓国語、日本人客に対しては日本語と、二言語の話しことばが飛び交い、韓国直輸入の音楽、映像、写真などがあふれ、音と文字が飛び交い、言語という「記号」以上に、韓国「文化」が店全体の価値観を構築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このような韓流ブームに関わるサブカルチャー的な文化の価値を、視覚的に、聴覚的に体験できる店内の「書きことば」をよくよく見ると、アイドル歌手の名前

やポスターやカレンダーに印刷されている文字表記は英語を意識したアルファベットが大半を占めていました。この英語の文字としての表出は、韓国国内での「西欧化」（ローマ字表記・英語表記）を直輸入した結果なのか、それとも日本の「西欧化」を意識した商業的戦略なのかはここでは明らかにではありません。日本語と韓国語の両国の社会に起きた「国際化」が、結果として起こした「西欧化」と見ることもでき、また、その点からいえば、英語というステイタスの高い「装飾性」が伴う言語景観における「国際化」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

二重の「西欧化」と「国際化」がここでは重なり、また、日本と韓国のグローバル化の時代背景も重なる、二重の「国際化」といえるでしょう。

写真7を見ると、韓国語の店名を漢字と音声表記としてのカタカナ表記を主体として、韓国語表記は飾りの一部として一つのパネルだけに配する食堂と、韓国語の店名を韓国語表記のハングル文字と音声表記としてのカタカナ表記を主体として、装飾的に英語の表記と花のイメージを配したカフェとが同じビルに同居しています。職種によっても表記の言語選択が異なると考えられます。韓流グッズ店やカフェという、若者を対象とする、サブカルチャー的要素の強いビジネスには、日韓表記の上にさらに、流行の先端の指標ともいえる英語が加わる傾向がみられ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が1980年以降に進めた国際化では、当時、国際語と同意義で使われていた「英語」化をするという理念が色濃く重なっていました⁸。言語景観から、このような「国際化」の多層性も表出します。

2.4 大久保通り周辺の店（3）：ニューカマー韓国人への日韓表記

写真8から写真10までに共通している特徴は、韓国語のハングル文字の「フォント」の大きさが目立ち、韓国語表記が明らかに主体となっていることです。ここでは日本語との二言語、もしくは日本語・ローマ字表記の三言語で看板や広告が表記されています。

美容院とクリニックの看板や広告には、大久保

通りのエステティックサロン同様、「西欧化」の装飾的ローマ字表記も見られます。しかし、対象者となるお客・患者はハングル文字の読める韓国出身の「女性」が意識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薬局の看板は、フォントだけではなく、韓国語表記が主体で、日本語は「薬」の漢字、入口の上の看板には韓国語の下に併記された漢字とカタカナ表記がありますが、店名の日本語表記はありません。韓国語・日本語の二言語のみの表記は、漢字の「漢方薬」が中国語使用者を意識し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一方、文字表記ではなく、お店の前に設置された日本の薬品会社の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は、日本人の目には「薬局」であるという視覚的な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ます。

写真10の産婦人科クリニックの広告は、住宅街の、幼稚園に面している路上、電信柱に設置されたものです。韓国語が主体となっていますが、情報により、言語としての記号や機能を使い分けています。最寄駅の情報は日本語と韓国語の併記にし、ロゴマーク、色、デザインといった装飾を施し、ウェブサイトの記載もあり、小さい広告空間に多くの情報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小学校と幼稚園の間の路上にあることから、広告の対象者は、韓国から来た若いニューカマーの家族やニューカマー韓国女性一般が対象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さらに電柱広告という点で、店という、表通りの固定された場所にある看板とは違い、「形状」も不安定で、ローカルな生活者対象に限定されている広告の媒体に、多言語表記が現れていることも興味深いところです。言語景観として見たときに、電柱広告は、公共的空間に浮かぶ、多言語の電話帳のような、ネットワーク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かのようにも見えてきます。

2.5 生活空間としての教育機関：生活から現れる「多民族化」の実践

2010年3月18日に、大久保地域にある幼稚園で修了式がありました。当日、幼稚園の外側には子どもたちの「ひらがな」のお祝いのことば、修了式と「漢字」で書かれた看板、色とりどりの絵や工作の飾り、日本の国旗が表玄関にありました。外から見ると、日本で見かけるごく一般的な幼

⁸ 国際化と英語の結びつきに関しては、Fujita・Round and Maher(2008)を参照ください。

稚園の風景です。その一ヶ月後、同じ幼稚園の表玄関の脇の門に、今度は、新しい、手作りの看板に気づきました。写真 11 の多言語表記の看板です。

語に関わる複数の多言語使用者であり、親の協力が看板作りに必要となり、保育園内の多民族を背景に持つ人たちの協働が自然に派生したと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写真 11 幼稚園



看板には、日本語（漢字）を中心に、韓国語、タガログ語、タイ語、中国語（簡体字）、英語の六言語で表記があり、子どもと一緒に乗るタイプの自転車の絵が三つ描かれています。写真 11 は、幼稚園という生活空間の中に現れた、六言語が可視化された言語景観です。

この看板の特徴は、①手書き、②言語ごとに色を変えろというコンセプト、③子どもと大人の二人乗りの自転車の絵となるでしょう。つまり、「手書きで多言語表記を書いた人」、「言語ごとに色を変えよう」と提案した人、「自転車の絵を描いた人」が考えられます。複数の人的関わりから、作成された看板です。ここでは、幼稚園の送り迎えの際に、公的な空間としてのルールが必要となり、子どもを迎えに来るすべての子どもたちの親（父親、母親）や家族（祖父母や親せき）に明示的に示すための案内板を作成することになっ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が、この幼稚園ではルールの周知の徹底を図るためには六言語が必要となったわけです。

そこで、幼稚園と看板を読む対象ともなる六言

「幼稚園駐輪場」というメッセージだけではなく、そこには多言語使用者が作り手として、看板が完成までに至るプロセスを楽しんでいるということも視覚的なメッセージとして伝えています。看板の描き手は、義務で描いているのでも、金銭のために書いているのでもないでしょう。ここには生活空間の中に現れた言語景観の中に、自発性のある多民族化の実践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3. むすびに： 多民族化の文脈と言語景観

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 : 9)らは、1962 年に新宿を対象に調査を行った地理学者の正井泰夫から「知らない外人が見たら、外人がたくさん新宿を利用するのか、それとも日本が『植民地』だからだと思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⁹」と引用して

⁹ 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 : 9)では、正井泰夫(1972)『東京の生活地図』時事通信社, pp. 153-158 から引用をした。

います。正井が言ったことを証明するための写真をみた編者たちの眼には「1960年代の日本の言語景観は、現状と比べて、実はきわめて同質的なもの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と映ったようです。編者たちが見た写真には、カタカナ外来語も数少ないながらも、漢字とひらがなの可視性が圧倒的に強く、ローマ字の看板は「TEA FOR TWO」という一例のみとあります(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 2009: 9)。

正井が1960年代にとった新宿区の言語景観は、漢字、ひらがなが圧倒的だったとすると、当時の新宿区、あるいは大久保地域に、多言語の表記は現在ほど可視化できなかったと言えます。50年後、本稿の新宿区の大久保地域の、限られた言語景観からではありますが、本稿で見た多言語の表記は、韓国語、中国語(簡体字、繁体字)、タイ語、タガログ語と英語という5言語、6表記です。ここからは表記を読む人たち、ニューカマー韓国人、在日オールドカマー、中国大陆、台湾、タイ、フィリピンの出身者が、大久保地域に関わり、大久保地域が多民族となっている状況が確認できます。

本稿での「多民族化」の定義は、先に挙げた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らの定義です。日本に在住する外国人が主にコミュニティ内の情報交換のために掲げる表示への発展を「多民族化」と捉えました。ここでは、多民族がただ集まったという事実だけではなく、集まった中で情報交換をする、そのプロセスとその実際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やり取りを詳しく見ることが、「多民族化」に凝縮した塊を読み解くことになるという解釈も可能でしょう。その点において、本稿中、八百屋の「笑顔 元気」という視覚的メッセージ、「幼稚園駐輪場」の多民族の、多言語を使用する人たちの生活空間で起こった自発性のある実践を「多民族化」、もしくはその実践例として挙げられるものです。

大都市としての多民族化と同時に、大久保地域の特徴として、日本語と韓国語の書きことばの二言語状況(バイリンガリズム)が韓流ブームを機に進み、ますます複雑さが増していることを「国際化」の多層性として確認しました。ここにおいて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影響が、日本と韓国の両国にそれぞれ「西欧化」を引き起こしたことが挙げられます。また、今後、大久保地域の言

語景観がニューカマー韓国人と韓国と日本の経済・文化交流の影響により、新たな景観をもたらす可能性も示唆されます。一方で、生活空間として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を対象とした言語景観は韓流ブームから起きた文化とは一線を画し、薬局やクリニックにみられる日本人がお客として考えるににくいサービスを提供する業種では、韓国語の表記とウェブサイトの掲載など、韓国人を対象にしたものが明らかでした。こうした業種が言語景観として増えたときに、それが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生活空間の広がりとして捉えられるでしょう。

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というときに、「多民族」と「多文化」に凝縮された塊をどのように解き明かすのかは、社会科学全般の学問領域に関わる課題となっています。そこでは、多民族や多文化、多言語に関わる事実の羅列をするだけでは、十分な実態に伴う文脈は立ち上がってきません。ここに言語景観の一つのアプローチ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画像の分析をする言語景観の研究手法は、写真を撮るという「切り取る」作業で、「何」を切り取るか、また、分析する写真を選ぶことで、ここでも「何」を言いたいのか、といった視点を切り取ることを促します。また、参考文献のテキストではない「情報」としての画像を分析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点で、多様なメディアが台頭をした情報社会となった21世紀の現在、多様な社会を映し出す新たな研究手法として、言語景観も一つのアプローチとなりう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新宿区は日本の他の自治体にはない、多国籍・多民族の現実を持っています。その中でも、現在の移動者である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動向と大久保地域全体がどのようにつながるかは、少子化が進む大都市の新宿区の未来にもつながってきます¹⁰。50年後の大久保地域の多言語景観から映し出

¹⁰ 事例として、子どもと家族をめぐる多民族化の実践例が現れた言語景観として、大久保地域の児童館便りをつけ加えます。児童館と学童保育所が併設された大久保児童館では毎月、児童館便りを出しています。児童館名を囲む形で「ようこそ・こんにちは」という意味の八言語(日本語、英語、中国語、ポルトガル語、フランス語、スペイン語、韓国語、タイ語)が書かれています。毎月、日本人の児童館職員による手書きで、多言語使用者の子どもたちや親に

されているの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多言語」でしょうか。

参考文献

- 藤井幸之助 (2005)「韓国・朝鮮人」, 真田信治・庄司博史編著『事典 日本の多言語社会』岩波書店, pp. 178-182
- 金美善 (2005a)「言語景観にみえる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著『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 pp. 195-224
- 金美善 (2009)「第 8 章 言語景観における移民言語のあらわれかた」,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pp. 187-205
- 生越直樹 (2005)「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変化」,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著『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 pp. 195-224
- P. バックハウス (2005)「日本の多言語景観」, 真田信治・庄司博史編著『事典 日本の多言語社会』岩波書店, pp. 53-56
- ペート・バックハウス(2009)「第 6 章 日本の言語景観の行政的背景」,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pp. 145-170
-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

向けて暖かいメッセージを送り続けています。大久保児童館は区の統廃合計画のため、2011 年 3 月で無くなることが決定しており、このような「多民族化」の実践が見られても、消滅することがあることも示唆しています。この児童館は、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の学習支援をしてきたグループが学習の場として使っていたという経緯もあり、児童館が大久保から無くなることを惜しむ、地域住民や学習支援に関わった様々な立場の大人たちが「さよなら大久保児童館」と題して地域住民と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たちとを結ぶ、「大久保児童館アートプロジェクト」を展開しています。プロジェクトのイベントに関わる画像や写真を言語景観と捉えるならば、大久保生活圏には、地域住民だけではなく地域外の人を巻き込む「多民族化」が広がっていることもわかります。2010 年の大久保地域の街の景観と児童館周辺の生活空間をウェブサイト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http://np-okubojidoukan.artforia.net/> 2011 年 11 月 10 日)。

- クルマス編著 (2009)『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 Backhaus, P. (2007) *Linguistic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Fujita-Round, S. and Maher, J. C.(2008)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Japan' in S, May & N,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Volume 1. pp.393-404,

参考ウェブサイト

- 大久保児童館アートプロジェクト
<http://np-okubojidoukan.artforia.net/>
新宿区役所
<http://www.city.shinjuku.lg.jp/>
トヨタ財団研究助成プロジェクト「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記録集の作成——顔の見える地域作りのための基礎作業」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default.aspx>

생활공간을 비춰내는 다언어경관(多言語景觀)

-신쥬쿠구(新宿区)오오쿠보(大久保)지역의 뉴커머 한국인의 언어경관을 중심으로

후지타라운도 사치요 (藤田ラウンド 幸世)

일본의 게이트웨이라고도 불리우는 신쥬쿠구(新宿区)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년간 오오쿠보(大久保)지역의 화상을 통하여 언어경관(보고서의 키워드 참조)에 비춰진 뉴커머 한국인들의 생활공간, 그리고 오오쿠보지역의 국제화와 다민족화를 생각하려고 합니다¹¹.

1. 다언어(多言語)를 배경으로 가진 “신쥬쿠(新宿)”의 언어경관

쇼우지(庄司), 백하우스(バックハウス), 쿠루마스(クルマス)(2009: 10)등은 일본의 언어경관에 대하여 1960년대 이후의 선행연구를 통해 언급하였는데, 특히 언어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가시화(可視化)하는 눈에 띄는 요소로서 “서구화”, “국제화”, “다민족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어 또는 그 외의 서양 언어에 의하여 언어경관의 가시성(可視性)이 높아진 것을 “서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지 장식용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다언어 표기를 하게 된 것, 또한 처음부터 영어와 로마자와 일본어가 같이

표기되어짐으로써 로마자와 영어의 가시성이 공공표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점자 등의 표시가 추가되어 가는 경향을 “국제화”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로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하는 게시물의 표기에까지 발전해 나아가는 현상을 “다민족화”로 꼽고 있습니다.

“신쥬쿠”에 관련한 언어경관은 야마노테(山手)선의 전철역 앞 거리의 간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언어로 표기된 언어경관(バックハウス 2005, Backhaus 2007)과 한국과 조선으로부터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민언어와 칸사이(関西) 코리안 커뮤니티의 언어변화와의 비교를 통한 언어경관(金美善 2009)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인 김미선(2009)은 코리안 뉴커머에 관한 언어경관 중에서 가시화된 한글표기의 증가와 관련된 글로벌화의 영향을 지적하였고 언어경관 중에서도 1. 일본에서 진행중인 일련의 다민족화 현상 2. 한국으로부터의 여행자 증가 3. 일본에서의 사회 현상인 “한류” 붐의 영향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해 내었습니다(김미선 2009: 194). 또한 김미선은 한국에서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루어낸 코리안타운을 동서로는 오오쿠보역 주변으로부터 메이지도오리(明治通り)까지, 남북으로는 카부키쵸(歌舞伎町), 쇼쿠안도오리(職安通り)로부터 오오쿠보도오리(大久保通り) 주변의 지역까지로 규정하였고 신쥬쿠의 뉴커머에 의해 민족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미선이 비추어낸 “신쥬쿠”의 언어경관과 본 보고서는 연구방법과 목적,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기간이 다르므로 통틀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필드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본 연구의 언어경관에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다민족화가 발생하는지, 한류 붐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그려내는 것, 이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1.1 조사지역과 조사기간

조사지역:신쥬쿠구하쿠닌쵸 1,2쵸메(百人町1・2丁目), 오오쿠보 1,2쵸메(大久保1・2丁目)

¹¹ 공공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경관으로서 거리의 가게나 광고 간판 등에 나타나는 언어경관을 필자의 눈으로 분석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물론 거리의 경관 전체는 사회언어인 일본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어가 다수파인 거리의 공공의 공간에 나타나는 “다언어경관”을 분석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오쿠보지역 전체가 다언어경관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현재의 다민족/다문화 현상과 공존하여 나타나는 다언어경관을 분석하겠습니다.

조사기간: 2009년 9월~2010년8월¹²

1.2 신쥬쿠구에 새로이 이주해 온 한국인

2010년 현재, 신쥬쿠에 살고 있는 구(区)민 중에 약11%가 외국출신자입니다. 2010년 6월 30일을 시점으로 신쥬쿠구의 통계¹³를 보면 신쥬쿠구의 외국인등록자수는 35,583명으로 한국/조선이 14,539명, 중국이 11,793명, 미얀마가 1,247명, 프랑스가 1,063명, 미국이 896명, 필리핀 867명, 네팔이 861명, 태국이 679명, 영국이 428명, 캐나다가 245명, 그 외에 2,9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1일의 통계¹⁴에 의하면 국적별 합계는 117개국이었습니다. 먼저 통계의 수치상에서 다민족화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¹⁵(2010년6월30일 현재)중에서 “특별영주자”의 수를 국적별로 본다면 한국/조선이 1,496명, 중국이 30명, 미국이 11명, 프랑스가 2명, 영국이 2명뿐입니다. 이것은 신쥬쿠구에서 가장 외국인등록자가 많은 한국/조선국적자의 약10%가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시대(1910~1945)전후에 일본에 넘어온 올드커머(오고시(生越)2005)”인 것을 의미합니다¹⁶.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관하여 후지이(藤井 2005)는 전자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또는 전쟁 이후에 조선반도로부터 넘어 온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자손으로 정의하였고 후자의 경우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전

면 자유화”를 계기로 증가하였는데 주로 유학생, 주재원,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삼은 젊은 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더욱이 김미선(2005:191)은 2006년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가 약208만 명으로 그 중에서 일본 국내의 코리언은 598,219명으로 올드커머가 약47만 명, 뉴커머가 약1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쥬쿠구는 일본의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코리언(역사적인 이동자(移動者))과, 현재 신쥬쿠구에서 가장 많은 민족적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 뉴커머(현대의 이동자(移動者)), 나아가 일본의 다수파인 일본인(호스트사회의 거주자)가 함께 살아가는 거주지로서의 단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오오쿠보지역의 언어경관

먼저 오오쿠보지역을 그림1에 나타내겠습니다. 이 오오쿠보지역은 JR오오쿠보역(사진 1,2)을 기점으로 JR오오쿠보역으로부터 JR신오오쿠보역까지를 “오오쿠보도오리의 서쪽(사진 3,4,5)”, JR신오오쿠보역에서 메이지도오리까지를 “오오쿠보도오리의 동쪽(사진 6,7,8,9)”, 그리고 오오쿠보도오리와 쇼쿠안도오리를 위아래로 나누었을 때 동쪽부분을 “오오쿠보생활권(사진 10,11)”이라고 합니다.

2.1 역 구내(駅構内)에 보이는 국제화와 다민족화

그림1의 사진1은 JR야마노테선(山手線)의 신오오쿠보역 사진입니다. 사진2에는 역 안의 개찰구 근처에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역 주변 안내도가 있습니다. JR의 안내도가 왜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벡하우스(2009:147)가 실시한 공공표시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정보의 표기는 ‘일영병기(和英併記)’를 원칙으로 한다(도쿄도정보연락실東京都情報連絡室1991)”라는 도쿄도의 지침과 도쿄도의 교통국이 1997년에 여행안내표식의 설

¹² 2009년 9월 25일(61장), 2010년 3월 18일(26장), 4월 16일(5장), 5월 9일(5장), 8월 3일(62장), 총 다섯 번의 필드워크를 통해 159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필드워크 중에 찍은 사진수가 각각 틀린 것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우 언어경관을 위한 필드워크였지만 다른 경우는 새롭게 출연한 경관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¹³ 신쥬쿠 구청 호적주민과 발행 자료(2010/07/06)

¹⁴ 신쥬쿠 웹사이트

<http://www.city.shinjuku.lg.jp/content/000067408.pdf>(2010/9/30)

¹⁵ 각주 3의 자료와 동일

¹⁶ 일본에 귀화한 재일교포도 있으므로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등록수일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치매뉴얼에서 언급한 “국제화”가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일본어와 영어 아니면 로마자를 같이 쓰는 표기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포함한 표기에 관해서 백하우스는 1997년부터 중국어와 한국, 조선어가 쓰레기 집적소의 설명서에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백하우스 2009: 161) 1990년대 도쿄도의 시책(施策)인 일본어와 영어의 동시표기에 일본국내의 “국제화”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R신오오쿠보의 안내도에도 이러한 “국제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림 1. 지도상으로 보는 오오쿠보지역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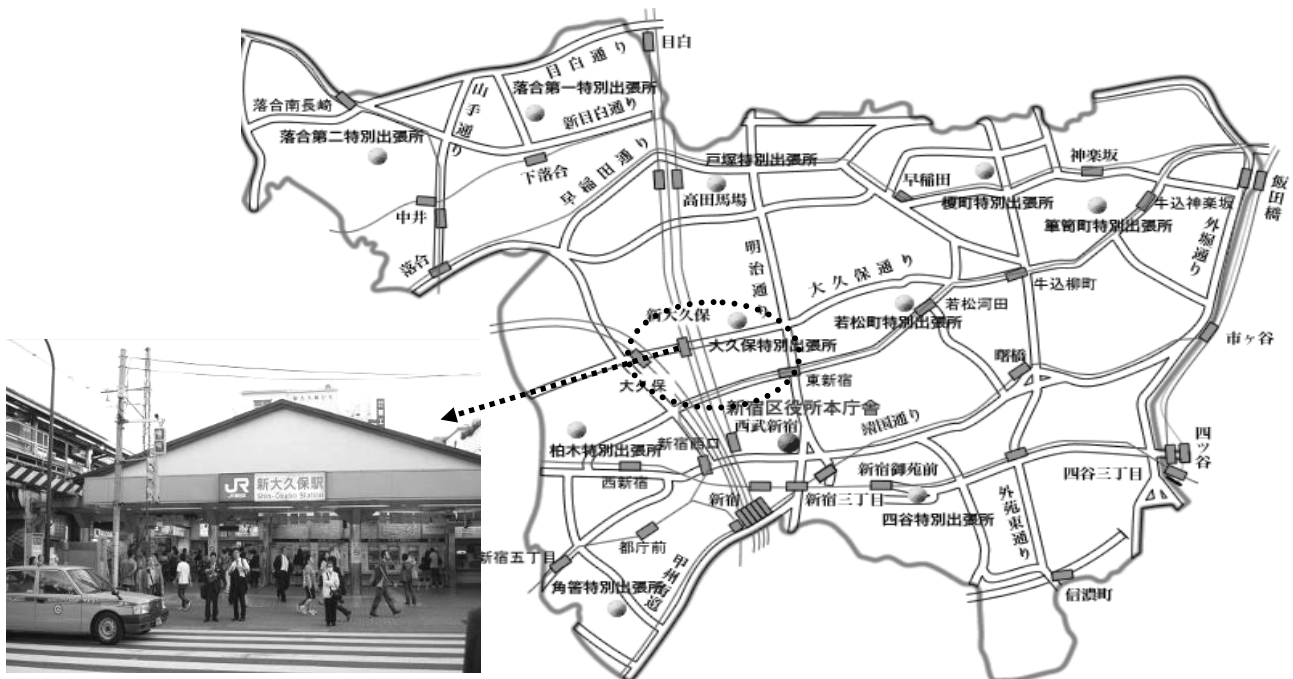


사진 1. JR 신오오쿠보역

¹⁷ 신쥬쿠 지도의 출전은 신쥬쿠구 웹사이트
<http://www.shinjuku.go.jp/>(2009/12/24)

사진 2. JR 신오오쿠보역의 안내판



사진 3. 에스테틱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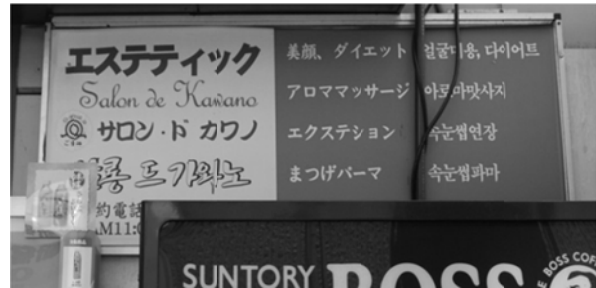


사진 4. 한국요리점과 약국



사진 5. 야채가게



사진 6. 한류 상품점



사진 7. 한류 상품, 요리점, 카페가 있는 빌딩



사진 8. 미용실



사진 9. 약국



사진10. 산부인과 클리닉



그런데 사진2를 자세히 보면 JR역 안이라는 공공의 공간에 두 언어 표기와 함께 상업적인 광고가 그 두 언어 표기의 안내도를 둘러싸는 형태로 다언어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광고는 일본어(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표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 영어, 태국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다섯 개의 언어로서, 단순히 표기 종류로만 따진다면 7종류의 표기문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왼쪽 가로의 광고에서 한국어의 경우, 글자크기와 색깔을 조절하여 상징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일본어표기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중국어 표기법의 하나이기도 한 한자를 사용하여 일본어, 중국어의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사용한 일본어문장, 거기에다 영어표기까지 더해진, 네 개의 언어/다섯 개의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당포의 광고는 다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슈퍼마켓은 주로 일본인, 한국/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역 앞이라는 입지조건을 생각한다면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표기는 영어 사용자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장식용으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2 오오쿠보도오리 주변의 가게(1): “다민족화”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JR신오오쿠보역은 오오쿠보도오리에 접해 있습니다. 오오쿠보도오리의 서쪽편의 신오오쿠보역 주변에는 다언어표기 중에서도 일본어표기가 강조되어 있으며 외국어가 장식용으로 나타나 있는 다언어경관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서구화”라는 측면에서는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한 커피점이나 에스테틱 살롱(사진3), “국제화”의 측면에서는 로마자표기를 함께 사용한 음식점이나 영어만 사용한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민족요리점인 한국/중국의 음식점에서 한국어표기나 중국어표기를 사용하면서 다언어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진4)

세 개의 언어나 네 개의 언어 등 다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다언어”의 언어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은, 그 곳에서 서로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단지 음성 자체를 표기하는 것이 목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로마자표기”, “서구화”, “국제화”와 같은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손님으로 하는 경우, 가게의 이름이나 의미를 일방적으로 번역해서 여러 언어로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 오십시오)”라는 접객인사에 상응하는 어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진5의 야채가게의 앞간판은 일본어표기(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중심으로 영어/한국어/중국어(대만글씨 繁体字)로 되어 있는 다언어표기, 거기에다 한자로 “笑顔(웃는 얼굴), 元氣(건강)”을 표기해 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에 드러나 있는 메시지는 한자를 공통의 표기로 하면서 중국어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향하여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그야말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잘 나타나 있는 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것은 정보를 여러 언어로 표기함으로써 전달되는 “국제화”로부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글자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어필하는 “다민족화”로 변화해 가고 있는 일례일지도 모릅니다.

2.3 오오쿠보도오리 주변의 가게(2): 일한표기와 “국제화”

오오쿠보도오리의 동쪽 편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한류 붐에 의해 경제가치가 높아진 한국어와 한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다언어경관이 있으며, 이는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6은 K-pop(한국의 가요곡)의 음악과 한류 붐 관련 상품을 함께 파는 판매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의 외관에는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나타내는 국기가 서로 교차된 형식으로 걸려있어 양국의 문화교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문화교류를 한류 붐과 연관하여 생각한 메시지

이겠지요. 하지만 국기의 위쪽에 있는 간판에는 일본어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보면 점원들간의 잡담은 한국어, 일본어 손님들에게는 일본어를 쓰는 등, 두 개의 언어가 섞여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음악, 영상, 사진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과 문자가 섞여있는데 언어라는 “기호”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가 가게 전체의 가치관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류 붐에 관련된 하위문화적인 문화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게, 그 가게 안에 나타난 “글”을 자세히 보면 아이돌 가수의 이름이나 포스터, 카렌더 등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는 영어를 의식한 알파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어 표기는 한국에서의 “서구화(로마자표기/영어표기)”가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서구화”를 의식한 상업적인 전략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회에서 발생한 “국제화”가 결과적으로 발생시킨 “서구화”로 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영어 표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영어의 “장식성”을 동반한 언어경관에 있어서 “국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二重)의 “서구화”와 “국제화”가 이곳에서 겹쳐지며 또한 일본과 한국의 글로벌화 시대의 배경에도 겹쳐지는 이중(二重)적인 “국제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진7을 보면 한국어의 가게 이름을 한자와 음성표기로서의 카타카나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어표기를 덧붙여서 하나의 간판에 나타낸 식당과, 한국어의 가게 이름을 한국어 표기법인 한글문자와 음성표기로서의 카타카나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다음으로 영어 표기와 꽃으로 이미지를 나타낸 카페 등이 같은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중에 따라서 표기법의 언어선택이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한류 상품점이나 카페와 같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하위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비즈니스는 일한표기였다가 유행의 첨단을 달린다고 말할 수 있는 영어를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1980년 이후부터 진행해 왔던 국제화는 당시 국제어와 동의어로 “영어”를 이곳 저곳에서 사용하자는 “영어화”라는 이

념과 “국제화”라는 이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¹⁸. 언어경관은 이러한 “국제화”의 다양한 계층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4 오오쿠보도오리 주변의 가게 (3): 뉴커머 한국인을 위한 한일표기

사진8에서 사진10까지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어의 한글문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며 명확하게 한국어 표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에는 일본어와 함께 두 언어나 아니면 일본어/로마자 표기와 함께 세 개의 언어로 된 간판이나 광고가 보입니다.

미용실과 클리닉의 간판이나 광고는 오오쿠보도오리의 에스텍 살롱처럼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장식적인 로마자 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 손님은 한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일반 “여성” 손님이나 “여성” 환자를 의식한 것이겠지요. 약국의 간판은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한국어 표기를 중심으로 일본어의 “약”이라는 한자, 그리고 입구 위의 간판에는 한국어 밑에 한자와 카타카나를 같이 표기하고 있으나 가게 이름은 일본어 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두 언어만으로 표기된 것은 한자로 쓰여진 “한방약”으로 이것은 중국어 사용자를 의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문자 표기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설치된 일본 제약회사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일본인의 눈에는 이 곳이 “약국”이라는 시각적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10의 산부인과 클리닉의 광고는 주택가의 유치원 앞의 도로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정보의 종류에 따라 언어로서의 기호나 기능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역의 정보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로고마크, 색깔, 디자인을 이용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주소도 적혀 있어 작은 광고공간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사이를 통과하는 거리가

기 때문에 광고의 대상자는 한국으로부터 온 젊은 뉴커머의 가족이나 또는 뉴커머 한국인중에서 젊은층과 중년층 장년층에 이르기까지의 일반 여성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신주 광고라는 특성상 가게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고정된 장소에 있는 간판과는 다르게 그 “형상”이 불안정한데 이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다언어표기가 쓰여져 있는 것은 정말로 흥미 있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언어경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신주 광고는 공공의 공간에 떠오르는 다언어의 전화부와의 같은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 생활 공간으로서의 교육기관: 생활로부터 나타나는 “다민족화”의 실천

2010년 3월18일에 오오쿠보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수료식이 열렸었습니다. 당일은 유치원 바깥쪽에는 어린이들이 “히라가나”로 쓴 축하의 글, “한자”로 쓰여진 수료식 간판, 형형색색의 그림이나 공작품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정문 현관에는 일본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외면만 본다면 이러한 풍경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극히 일반적인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한달 후 같은 유치원의 정문 현관의 옆쪽 문에 이제 막 만든 것 같은 수제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사진 11의 다언어로 표기된 간판입니다.

¹⁸ 국제화와 영어의 연결점에 대해서는 Fujita-Round and Maher(2008)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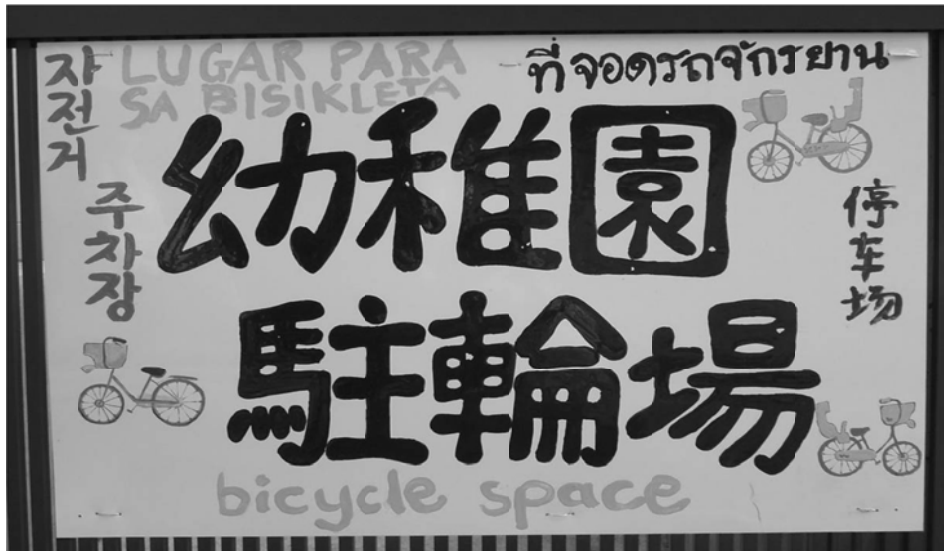


사진11 유치원

간판에는 일본어(한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중국어(대만글), 영어로 총 6개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세 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간판의 특징은 1, 직접 손으로 쓴 것, 2, 각 언어마다 색깔을 바꾸는 등의 컨셉, 3,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의 그림입니다. 즉, “직접 손으로 여러 언어를 표기한 사람”, “언어마다 색깔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 “자전거의 그림을 그린 사람” 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이 이 간판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데리러 갈 때에는 공공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룰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러 오는 모든 부모님(아버지, 어머니)이나 가족(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의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한 안내 간판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유치원에서는 모두가 룰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개의 언어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유치원과 간판을 읽는 대상인 동시에 6개 언어의 각각 사용자이기도 한 부모들의 협력이 간판 만들기에 필요했을 것이며 보육원 안에서 다민족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의 협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간판에는 다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간판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겁게 참여했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도 전해져 옵니다. 간판을 그린 사람은 의무적으로 만든 것도 돈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겠지요. 이 간판에는 생활 공간에 나타난 언어경관 중에서도 자발성이 돋보이는 다민족화의 실천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끝나치면서: 다민족화 문맥과 언어경관

1962년에 신쥬쿠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지리학자 正井泰夫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많은 외국인이 신쥬쿠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식민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¹⁹” 라고 말하였는데 쇼우지(庄司)/백하우스(バックハウス)/쿠루마스(クルマス)(2009:9) 등은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正井가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들을 본 집필자들의 눈에는 “1960년대 일본의 언어경관은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동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비춰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본 사진에는 카타카나 외래어

¹⁹ 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9)에서는 正井泰夫(1972)『東京の生活地図』時事通信社, pp. 153-158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한자와 히라가나의 가시성이 압도적으로 강하며, 로마자로 쓰여진 간판은 “TEA FOR TWO”라는 예로 단 한 군데뿐입니다. (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 2009 : 9)

正井가 1960년대에 찍은 신쥬쿠의 언어경관은 한자와 히라가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면 당시의 신쥬쿠 또는 오오쿠보지역에 다언어 표기는 지금과 같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본 연구의 신쥬쿠구의 오오쿠보지역의 한정된 언어경관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본 다언어의 표기에는 한국어, 중국어(대만글, 중국글), 태국어, 타갈로그어와 영어라는 5개의 언어, 6가지의 표기입니다. 표기를 읽는 사람 뉴커머 한국인, 재일교포인 올드커머, 중국대륙, 대만, 태국, 필리핀 출신자들이 오오쿠보지역에 모여들어 그 곳에서 오오쿠보지역의 다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다민족화”는 앞서 언급한 쇼우지(庄司)/백하우스(バックハウス)/쿠루마스(クルマス)(2009) 등이 정의한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교환을 위해 설치하는 표시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다민족화”의 정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다민족이 단지 함께 모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임 중에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는 것, 그 프로세스와 실제의 커뮤니케이션의 상세한 실상을 들여다 보는 것이 “다민족화”에 응축되어 있는 덩어리를 들여다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해석도 가능해지겠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야채가게의 “笑顔 元氣” 라는 시각적인 메시지, “유치원의 자전거 주차장” 의 다민족, 다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실천을 “다민족화” 또는 그 실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에서의 다민족화, 구체적으로는 오오쿠보지역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어와 한국어 글씨로 이루어진 두 개의 언어상황(바이링가리즘)은 한류 붐을 계기로 진행되어 왔으며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화”의 다양한 계층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는 글로벌화의 영향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 있어서 각각 “서구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오쿠보지역의 언어경관이 뉴커머 한국인과 한국, 일본의 경제/문화교류의 영향으로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뉴커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경관은 한류 붐을 계기로 일어난 문화와는 그 구분이 명확하며, 약국이나 클리닉과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인을 손님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한국어 표기와 웹사이트의 주소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종이 언어경관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그것이 곧 뉴커머 한국인의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에 “다민족”과 “다문화”에 응축된 덩어리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여 밝혀낼지는 사회과학 전반의 학문영역에 걸친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민족이나 다문화, 다언어에 관계된 사실을 단지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그 과제의 실태에 연관된 문맥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언어경관이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을 분석하는 언어경관의 연구방법은 사진을 찍는 이른바 “잘라내는” 작업을 통하여 “무엇”을 잘라내는지, 그리고 분석에 쓸 사진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라는 시점을 “잘라내는” 작업을 촉진합니다. 또한 참고문헌의 텍스트가 아닌 “정보”로서의 화상을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여 정보화 사회가 된 21세기 현재 다양한 사회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언어경관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쥬쿠는 일본의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다국적/다민족이라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이동자인 뉴커머 한국인의 동향과 오오쿠보지역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신쥬쿠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²⁰. 50년 후의 오오쿠보

²⁰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린이와 가족을

지역의 다언어경관이 비춰내는 것은 과연 어떠한 “다언어” 일까요?

참고문헌

藤井幸之助 (2005) 「韓国・朝鮮人」, 真田信治・庄司博史編著『事典 日本の言語社会』岩波書店, pp. 178-182

金美善 (2005a) 「言語景觀にみえる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著『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 pp.195-224

金美善 (2009) 「第8章 言語景觀における移民言語のあらわれかた」,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觀』三元社, pp. 187-205

生越直樹 (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変化」,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著『在

日コリアンの言語相』和泉書院, pp. 195-224

P. バックハウス (2005) 「日本の多言語景觀」, 真田信治・庄司博史編著『事典 日本多言語社会』岩波書店, pp. 53-56

ペート・バックハウス(2009) 「第6章 日本の言語景觀の行政的背景」,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觀』三元社, pp. 145-170

庄司博史, ペート・バックハウス, 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 (2009) 『日本の言語景觀』三元社

Backhaus, P. (2007) *Linguistic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Fujita-Round, S. and Maher, J. C.(2008)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Japan’ in S, May & N,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Volume 1. pp.393-404

참고웹사이트

오오쿠보아동관아트프로젝트

<http://np-okubojidoukan.artforia.net/>

신쥬쿠구청

<http://www.city.shinjuku.lg.jp/>

도요타재단 연구조성 프로젝트 “신쥬쿠에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분들의 라이프스토리 기록집의 작성-얼굴이 보이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기초작업-”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default.aspx>

둘러싼 다민족화의 실천적인 예가 드러난 언어경관으로서 오오쿠보지역의 아동관 정보지를 추가합니다. 아동관과 학동 보육소가 함께 설치된 오오쿠보 아동관에서는 매월 아동관 정보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관의 이름을 예워싸는 형식으로 “어서 오세요/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의 여덟 가지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태국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매월 아동관의 일본인 직원이 손으로 쓰고 있으며 다언어 사용자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오쿠보 아동관은 구(區)의 통합 계획으로 인해 2011년 3월에 없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다민족화”의 실천적인 예가 보임에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관은 외국과 연결된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원해 온 그룹이 학습의 장으로서 이용해 왔다는 이유도 있어서 아동관이 오오쿠보로부터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이나 학습 지원에 동참하였던 여러 입장의 어른들이 “안녕 오오쿠보 아동관” 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주민과 외국과 연결된 어린이들을 연결하는 “오오쿠보 아동관 아트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벤트에 관련된 화상이나 사진을 언어경관으로 생각한다면 오오쿠보의 생활권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밖의 사람도 끌어들이는 “다민족화”가 확장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오오쿠보 지역의 거리의 경관과 아동관 주변의 생활 공간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http://np-okubojidoukan.artforia.net/> 2011년 11월 10일)

<論考 / 논고 7>

新大久保の原風景 —母のライフヒストリーに寄り添 って—

川村千鶴子

◇ まちの誕生の原点 ◇

東京大空襲の最中にも、そして平成 23 年 3 月 11 日の東日本大震災の直後に、瓦礫の中で産声をあげる子どもがいた。人は、どんな時に、どんな場所で、どんな親から生まれるのか、それらを選択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故に、産声をあげてはじめて出会う親との運命的な接触ほど、神秘的なものはないだろう。

出産は、どの文化、どの国籍、どの民族においても普遍的である。しかしながら、身ごもる環境、文化的通念、出産にまつわる文化的儀礼や慣習などは実にさまざまである。ともに生きるライフサイクルの視点からいえば、ともに生まれるというライフステージは、人生のスタート点であり、出産をめぐる社会的文化的背景は、その後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獲得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

東日本大震災から 1 ヶ月後 4 月に 93 歳の誕生日を迎えた母は、テレビの画面に津波と地震によって崩壊する家々、離散を余儀なくされ家族の表情、瓦礫の山を見ていた。その時、母の心には 66 年前、新宿を襲った大空襲が蘇ってきた。廃墟と化した新大久保の復旧の光景が、脳裏に浮かび、風化されつつある記憶がふと蘇ってきたのだ。

本稿では、母のライフヒストリーに寄り添い、新大久保の高齢者の聞き書きも合わせて、当時の記憶から新大久保という地域が戦争中どんな経験をもち、焦土と化した荒野から、いかにして復興し、再生してきたのか、その原体験と原風景を描き出してみた。

◇ 戦時中の新大久保 ◇

昭和 17 年、新宿はすでに B25 による初空襲を経験していた。

新大久保駅は小さな木造の駅舎で、切符切の車掌さんが立っており、周辺は緑が多く閑静な住宅街であった。駅のプラットホームの長さは

現在の半分ほどで、改札口への階段は両方からではなく片方だけだった。ホームに立つと、大久保駅のホームが見えて手を振りあっていた。

新大久保駅のホームの真下には、20 坪ほどの洒落た 2 階家があった。白いテラスにむけてホームから声をかけると中から人が出てきて、在宅を確かめてから改札口へ降り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

この小さな家で、私の父母は見合いをした。当時は男女がめぐり合う機会も少なく、一目ぼれで双方すぐにも結婚したかったそうだ。けれども焼夷弾がいつまた降り注ぐかも分からず、戦時中、結婚式などを挙げること自体が夢であった。

そんな折、早稲田大学大隈講堂の使用が許されて、昭和 19 年 4 月 10 日、親族を集めて式をあげることができた。豪華な花嫁衣装に憧れていたが、借れる衣装は一着しかなかった。新郎は、式の早朝、高田馬場で人数分の赤飯弁当を買って大隈講堂まで運んだ。当時はなかなか食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赤飯を見た親戚からは笑顔がこぼれ歓声が上がったという。新婚旅行は、お米を持参して熱海に一泊。

「それはそれは夢のような日々であった」とか。

◇ 建物強制疎開 ◇

軍事施設も多く、戸山が原には射撃場や陸軍科学研究所などもあった。空襲に備えて、線路周辺の家々にはすべて、「建物強制疎開」という命令がでた。自宅を自ら解体・崩壊する苦渋の作業に海城高校の生徒や学生たちも動員された。父は、コロを使って、その 2 階家を 2 週間ほどかけて一番街の道をはさんで移動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

その後、父は蒙樞の宣化（現在の中国河北省張家口市宣化県）の建築課長として単身赴任し、ほとんどの男性が、戦地に駆り出されていた。残った女性たちは毎日、防空演習や消火訓練に活躍した。運動選手だった母は、新大久保一帯の班長に指名され、鉄兜に長靴姿で防空壕を掘ったりして奔走した。記録によれば、昭和 19 年 11 月 29 日、B29 が約 80 機、飛んで 2 時間ほどの空襲があった。

恐怖と不安、空腹と非衛生的環境、家族の離散。耐え忍ぶ日々であった。

◇ 戦火の中での移動 ◇

東京大空襲（昭和 20 年 1945、3 月 10 日）では死者 8 万人、行方不明者を含めると 10 万人以上だった。焼失家屋約 26 万戸と推定される。B29 が出撃したのは 300 機以上、東京に到達したのは 279 機と伝えられている。東京上空の様子を、母は 2 階にあがって眺めた。下谷方面が火の海になったのを見た。文房具店を営んでいた Yさんは、背中にリュックサックを背負って、大久保通りから文化通りを走って、海城高校まで逃げようとしていた最中、リュックには火がついたままだったという。

新大久保一帯は焼け野原となり、南方には伊勢丹と三越（現在の新宿区新宿）だけが残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

西方には、聖母病院（現在の新宿区中落合）だけが、なぜか残っていた。人々は、命からがら防空壕に隠れていた。

父からは、「蒙樞は平和で広々した処だから 10 年は住むつもりでこちらに来なさい。北京までしか迎えにいけないが。」と書かれた手紙が届いた。母は、東京を出発して九州に向かった。兄が見送ってくれた。九州で親戚の世話になり、4 月 10 日に宣化に着いた。父との再会の喜びは生涯忘れられないものとなった。

◇ 新宿の児童の学童疎開先は福島・茨城 ◇

5 月ドイツは連合国に無条件降伏、6 月には、学童疎開が半強制的に始まっている。地域の国民学校の児童は、福島、茨城、栃木、群馬、山梨などのお寺や旅館で疎開生活を送った。たとえば戸山国民学校の疎開児童たちは、群馬県遍照寺近くの川原で朝の乾布摩擦をしている。

最近も町会のお祭りで当時の疎開生活を語りあった。

「ホームシックにかかり、ひもじかったね。」疎開生活が語り継がれて共有している。

家族の離散、戦時中の移動は、子どもたちの人間発達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た。筆者は、国籍や民族に関わらず受容する街の形成に、こうした苦難の移動の記憶が潜んでいるように思えてならない。

◇ 敗戦と廃墟からの再生 ◇

東京は廃墟となった。昭和 21 年元旦、天皇

陛下の人間宣言を人々はどのような気持ちで受け止めたのだろう。

母は帰国するように言われて、一人で中国から帰国の手続きをした。

3 月 25 日、1 年振りに焦土と化した日本の土地を踏み、九州の親戚の家に世話になり、姑と一緒に和歌山で墓参りを済ませ、その足で東京に向かう。新大久保一帯は焼け野原となり、折角移動したあの懐かしい家も B29 によるじゅうたん爆撃によって焼失していた。あたりは瓦礫の山で、立ち尽くすしかなかった。新宿区全域の 90%を焼失し、人口は 5 分の 1 に減少し、バラックの仮住まいの人々があふれていた。

父は仕事を済ませて後から 5 月に帰国した。

杉並の知人の家の一間に仮住まいさせてもらった。

◇ ひもじさのなかで ◇

人々は、焼け野原を耕して家庭菜園をつくりはじめた。しかし、すぐに収穫があるわけではない。【写真 1】は、新宿区目白村の復興への人々の様子で、鍋を囲んで談笑している。どこもこんな感じで、戦争が終わった喜びもあり、人々の表情が明るい。ようやく希望が湧いてきた。しかしどうやって食材を手に入れたのだろう。



【写真 1】空襲で焼け残った人々（新宿区目白文化村）（新宿歴史博物館所蔵）

国民学校は 40 校のうち 23 校が全焼し、5 校が一部焼失した。青空学校がスタートした。元気な子どもたちの表情は明るかった。

連合軍による占領時代となり、山手線の周辺には、GI のチョコレートやガム欲しさに、子

どもたちが走った。現在町会役員の S さんは、そのガムの美味しさを未だに覚えている。当時のひもじさ、食料不足は深刻だった。

◇ 新宿のエネルギー ヤミ市 ◇

米や野菜をどこから、どうやって手にいれるのか。当時の闇市のことは母の日記にも記されている。江戸東京博物館には、新宿駅東口のヤミ市の模型が展示され、戦争直後の社会現象をしのぶことができる。

昭和 22 年 3 月に牛込、四谷、淀橋が統合して新宿区が誕生したころ、6・3 制が始まり教科書の内容が大きく変わった。誰もが空腹をかかえ、「民主主義」とは何のことやらよく分からないが、新しい時代の幕開けを感じていた。日本中にベビーブームが起こる。

3 月 1 日、雪の降る日に、私は産声をあげた。

◇ 起業の歴史 ◇

とうもろこしが垣根の役割を果たすほど成長していた。

地域の人々はそれぞれの技能や経験を生かして起業するようになる。

父は建築会社を創業し、昭和 23 年、復興の中、新大久保駅に自宅と事務所を新築した。12 坪以上の家を建ててはいけないという建築統制もあったが、玄関の隣に、洋風の応接間があって、和室 2 つ、台所と食堂。文化住宅のモデルルームとなって大勢の人に部屋を案内した。

「ぜひこれと同じように建ててください」という注文が殺到した。「いまは、お金が無いのですが、いつかは払いますよ」という注文ばかりだったが、それらを引き受けざるを得ない起業であった。

家々では、鶏、尾長鳥、犬を飼っていた。広い庭があり、池を作ってアヒルもいた。【写真 2】は、尾長鳥の写真で、背景にあるのが新大久保の自宅。鶏の生む卵が貴重な食料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鶏は、大事な来客時、ご馳走の主演となった。切り落とされた 2 本の足先手先は、私たち幼い子どもの遊び道具である。

子どもたちは、「ダルマさんが転んだ」「缶けり」「ゴム弾」などたいした道具のいない遊びに夢中になった。大きな蔭の葉は、かくれんぼの絶好の隠れ場所だった。

百人町はつつじの里として江戸時代から有名であるが、筆者の思い出は、大きな芙蓉の花が咲き乱れていることだった。

庭には大きなイチジクの樹があり、枝の間にダンボールを引いて、子供の遊び場ができた。正月には獅子舞やはしご踊りが人を集めて、祭りも次第に盛大になっていった。

まだ下水道も電気製品もない時代であるが、エネルギーで楽しい思い出が付きない。



【写真 2】懐かしい新大久保の自宅
(現在の新大久保駅付近)

◇ ロッテガム ◇

線路の向こう側には、ロッテガムの工場ができ、そこからは、なんとも言えない美味しそうな香りが、地域全体に漂っていた。ロッテガムの創業者は、韓国の本土から来た留学生で、早稲田実業を出て苦学した体験やリヤカーを引いて石鹼やガムを売り歩いていた姿を記憶している住民が多い。

町会では今でもこの創業者を尊敬の気持ちをもって語る人が多い。

チューインガムの香りは、山手線の電車の中まで漂った。近所の主婦は、ダンボールにガムやキャラメルを入れて、自宅に運び、小さな包み紙に包む内職をしていた。地域には韓国の方々が、移住するようになる。大久保通りを挟んで、歌舞伎町に向かう地域には、済州島からの移住者も増えていった。

◇ とともに生きるまち ◇

大久保駅近くにある淀橋教会は、アメリカの教会のような素朴で新しい光景を醸し出した。とうもろこし畑に囲まれ、3歳になった私は日曜礼拝に、祖母に手をひかれて通った。敵国であったアメリカは、ともに祈る隣人となり宣教師が移住してきた。いまの文化通りあたりにあったその家は、アメリカ風の台所ドアに網戸がついて天井の高い優雅な家だった。筆者は、中学生になると英語をしゃべってみたいで、そうした家のドアをたたき、友人となって、子守りをかけてでたりした。家族ぐるみの付き合いが始まる。

「鬼畜米兵」といった時代は、コペルニックス的転回をとげ、地域は復興とともに平和の心を広げ、敵味方という考えはなくなり、楽しい交流が始まったのだ。

以上、母の記憶に寄り添って、戦後の荒廃と復興への新大久保の原風景の一齣を素描してみた。ライフヒストリーに寄り添うことによって、これまでの新宿の歴史書には、書かれなかったこと、見えなかったこと、地域の人々の本音も可視化することができる。

母は、80年代以降から来日した韓国の学生に、こういった情景を話したことがある。とても想像できないと驚くとともに高齢者の語りから多くを学べることに感動していた。

喜怒哀楽が聞こえてくるような生活史の中に、時代に翻弄されながらも、自らの人生をたくましく生きる気概と主体性が伝わってくる。

地域の再生とネットワークの形成、そして変貌の速さに驚きながらも語り継ぐことの重要性が人々のところに流れて、それが由緒となって地域を支えていることを読み取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ある。

<論考 / 논고 7>

신오오쿠보의 마음속 깊은 풍경 -어머니의 라이프 스토리의 곁에 다가서서-

카와무라 치즈코

◇ 마을 탄생의 원점 ◇

동경대공습이 계속 되던 중에서도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직후에도 잔해 속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이 있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부모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트리며 만나는 부모와의 운명적인 접촉만큼 신비스러운 것은 없지 않을까?

출산은 어느 문화나 국적이거나 민족이든지 보편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임신을 하게 되는 환경, 문화적인 통념, 출산에 관련된 문화적인 의례나 관습 등은 각양각색이다. 함께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의 시점으로 보면 함께 태어나는 라이프스테이지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나중의 정체성 획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개월 뒤, 4월달에 생일을 맞이하여 93살이 되시는 어머니는 쓰나미와 지진으로 무너지는 집들이나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사람들의 표정과 산처럼 쌓인 잔해를 티비를 통해 보셨다. 그 때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66년 전, 신주쿠의 대공습을 떠올리셨다. 폐허가 되어 버린 신오오쿠보의 복구의 광경이 뇌리에 떠올라 아련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머니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리고 신오오쿠보의 고령자들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당시의 기억을 통해 신오오쿠보라는 지역이 전쟁중에 어떠한 경험을 겪었으며 잡초가 무성한 황야에서 얼마나 복구되었으며 재생했는가, 그러한 옛날의 체험과 풍경을 그려내었다.

◇ 전쟁중의 신오오쿠보 ◇

1942년 신주쿠는 이미 B25의 첫 공습을 경험한 뒤였다. 신오오쿠보역은 목조로 된 작은 역으로 표를 꿇는 차장이 있었으며 주변은 녹색의 자연이 풍부한 조용한 마을이었다. 역의 플랫폼 길이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개찰구의 계단은 양쪽이 아니라 한 쪽 밖에 없었다고 한다. 플랫폼에 서면 오오쿠보역이 손에 잡힐 정도로 눈에 들어왔다.

신오오쿠보역 플랫폼의 바로 밑에는 20평정

도의 멋진 2층 가옥이 있었다. 플랫폼에서 새하얀 테라스를 향해 말을 걸면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찰구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작은 집에서 나의 부모님은 선을 봤다고 한다. 당시는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한눈에 반한 부모님은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이탄¹이 언제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전쟁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꿈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와세다대학의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1944년 4월 10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호화스런 신부 드레스를 기대했었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은 한 벌 밖에 없었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 아침 타카다노바바에서 팔찰밥² 도시락을 사들여 사서 대강당으로 가져왔다. 당시에는 웬만해서는 먹을 수 없었던 팔찰밥을 본 친척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우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신혼여행은 쌀을 직접 가지고 아타미(熱海)에서 일박을 했다.

“정말로 꿈과도 같은 날들이었어”

◇ 건물강제소개(建物強制疎開) ◇

토야마가하라(戸山ヶ原)에는 군사시설도 많았고 사적장이나 육군과학연구소도 있었다. 공습에 대비하여 선로 주변의 집들에는 전부 “건물강제소개”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자기 집을 스스로 해체하여 무너뜨리는 고통스런 작업에 카이세이(海城)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아버지는 그 2층 가옥을 2주에 걸쳐서 바퀴가 달린 큰 판으로 1번지의 도로를 건너 이동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그 뒤에 아버지는 몽강의 선화(지금의 중국 하북성 장가구시 선화현)로 건축과장으로 단신 부임하였는데 대부분의 남성은 전쟁에 불려 나갔었다. 남아 있는 여성들은 매일같이 방공연습

¹ 소이탄(燒夷彈)

목표물을 불살라 없애는 데 쓰는 포탄이나 폭탄 따위를 말하는 것으로, 적군, 도시, 구축물, 항공기 등을 태워 없애기 위해 쓰인다.

² 팔찰밥(赤飯)

팥을 넣어 만든 밥. 일본에서는 결혼식이나 입학식, 생일과 같은 날에 먹는 풍습이 있다.

과 소화훈련에서 활약하였다. 운동선수였던 어머니는 신오오쿠보 일대의 반장으로 지명받아서 철모와 장화를 신고 방공호를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1944년 11월 29일 B29 80대가 날라 와서 2시간 정도 폭격을 가했다고 한다.

공포와 불안, 배고픔과 비위생적인 환경, 이산가족. 참고 건디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 전쟁의 불길 속에서의 이동 ◇

동경대공습(1945년 3월 10일)에는 사망자가 80만명으로, 행방불명자를 포함하면 10만 이상이 되었다. 불에 탄 가옥은 26만 채로 추정된다. B29가 출격할 수는 300대 이상으로 동경에 도착한 것은 279대라고 전해진다. 어머니는 2층에 올라가서 동경대공습을 바라보았다. 시모다니(下谷)방면이 불바다가 된 모습을 보았다. 문방구점을 경영하던 Y씨는 등에 가방을 메고 오오쿠보 거리에서 문화 거리를 달려 카이세이 고등학교로 도망가려던 중에 가방에 불이 붙은 채로 달렸다고 한다.

신오오쿠보 일대는 불에 탄 들판처럼 되었고 남쪽은 이세탄(伊勢丹)과 미코시(三越)(지금은 신쥬쿠구 신쥬쿠)만이 남은 것만 보였다.

서쪽은 성모병원(지금의 신쥬쿠구 나카오치아이)만이 웬일인지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방공호에 대피하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멍강은 평화롭고 넓은 곳이니 까 10년은 살 생각을 가지고 이 곳으로 와라. 북경까지 밖에 데리러 갈 수 없지만”이라고 쓰여진 편지가 왔다. 어머니는 동경을 떠나 큐슈를 향했다. 형이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큐슈에서는 친척집에 머무르다가 4월 10일에 선화시에 도착하였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 신쥬쿠의 어린이의 학동소개지

후쿠시마(福島)와 이바라키(茨城) ◇

5월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적인 투항을 했고 6월에는 학동소개가 반강제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의 국민학교의 어린이들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야마나시 등 절이나 여관에 서 소개 생활을 보냈다. 예를 들면 토야마국민

학교의 소개아동들은 군마현 헨조우지(遍照寺)에서 가까운 내천에서 아침에 건포마찰을 하곤 했다.

지금도 마을회 주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당시의 소개 생활이 말로 전해지고 있다.

이산 가족, 전쟁중의 이동은 어린 아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필자는 국적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주는 마을 형성에 이러한 고난의 이동에 관한 기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패전과 폐허로부터의 재생 ◇

동경은 폐허가 되었다. 1946년 1월 1일 천황 폐하의 인간선언을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였을까?

어머니는 귀국하라는 말을 듣고 혼자서 중국에서 귀국 수속을 밟았다. 3월 25일, 1년 만에 새로 변한 일본의 땅을 밟고 큐슈의 친척집에 머물다가 시어머니와 와카야마(和歌山)에서 성묘를 마치고 그 길로 동경으로 향했다. 신오오쿠보 일대는 불에 탄 별판으로 변했고 모처럼 이동시켰던 그 그리운 집도 B29에 의한 용단폭격에 의해 타버리고 없어져 있었다. 주변은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신쥬쿠구 전역의 90%가 불에 타버렸으며 인구는 5분의 1로 감소하였고 판자집에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나중에 5월에 귀국했다. 스기나미(杉並)의 아는 사람 집의 한 칸에 임시로 살게 되었다.

◇ 배고픔 속에서 ◇

사람들은 타버린 들판을 일구어서 가정 농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바로 수확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진1)은 신쥬쿠구의 메지로촌 복구를 위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냄비를 둘러싸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어디를 가나 이러한 풍경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도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다. 드디어 희망이 솟아 올랐다. 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을까?

[사진1] 공습으로 인해 타고 남은 집에 모인 사람들



(신쥬쿠구 메지로 문화촌)

(신쥬큐역사박물관소장)

국민학교는 40개교 중에 23개교가 전부 타버렸고 5개교가 부분적으로 불에 타버렸다. 푸르른 하늘 아래서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건강한 아이들의 표정은 밝고 명랑했다.

연합군에 의한 점령시대가 시작되었고 야마노테선 주변에는 GI의 초콜렛이나 껌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뛰어다녔다. 현재 마을회 임원을 맡고 있는 S씨는 그 때의 껌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의 배고픔과 식량부족은 심각한 것이었다.

◇ 신쥬쿠의 에너지 뒷시장³ ◇

쌀이나 야채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당시의 뒷시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에도동경박물관에는 신쥬쿠역 동쪽 출구에 있었던 뒷시장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서 전쟁직후의 사회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1947년 3월 우시고메(牛込), 요쓰야(四谷), 요도바시(淀橋)가 통합되어 신쥬쿠구가 탄생되었을 때, 6.3 제도가 시작되어 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부여 잡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다.

◇ 창엽의 역사 ◇

³ 뒷시장(闇市)

물자부족으로 인해 물가를 통제하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합법적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시장. 블랙마켓이라고도 불린다.

옥수수가 울타리처럼 높아질 정도로 성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각자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1948년 복구가 한창이던 때에 신오오쿠보에 자택과 사무소를 신축하였다. 12평이상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건축통제도 있었지만 현관 옆에 서양풍의 응접실이 있어서 일본식 방 2개와 부엌, 식당이 있었다. 문화주택의 모델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꼭 이 집과 똑같이 지어주세요”라는 주문이 쇄도하였다. “지금은 지불할 돈이 없지만 언젠간 지불할게요”라는 주문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 들일 만큼 기개가 넘치는 창업이었다.

집에서는 닭, 오나가도리(尾長鳥⁴), 개를 키웠다. 넓은 정원이 있었고 연못을 만들어 오리도 키웠다. 사진2는 오나가도리의 사진으로 배경이 된 곳이 신오오쿠보의 자택이다. 닭이 낳는 달걀이 귀중한 식량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닭은 중요한 손님이 올 때에 밥상의 주역이 되었다. 어린 우리들은 두 다리를 잘라서 가지고 놀곤 했다.

어린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깡통차기“고무충” 등, 특별한 도구 없이도 놀 수 있는 놀이에 흠뻑 빠져있었다. 큰 후키의 잎(藨の葉)은 숨바꼭질할 때에 절호의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하쿠닌쵸(百人町)는 진달래 마을로 에도 시대부터 유명하였다. 큰 부용 꽃이 어우러져 만발한 모습이 나의 추억의 한 장면이다.

정원에는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 사이에 박스를 깔아서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쓰여 지기도 했었다. 정월에는 사자춤이나 하시고춤(はしご踊り⁵)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도 성대하게 열렸었다.

아직 하수도도 전기제품도 없는 시대였지만 에너지가 넘치며 즐거운 추억이 끊이지를 않았다.

[사진2] 그리운 신오오쿠보의 자택



(지금의 신오오쿠보역 근처)

◇ 롯데 겸 ◇

선로 건너편에는 롯데 겸 공장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맛있는 향기가 지역 전체에 퍼져 나갔다. 롯데 겸의 창시자는 한국 본토에서 온 유학생으로 와세다 실업 고등학교를 나와 고생한 경험이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비누와 껌을 팔며 다니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마을회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을 존경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추잉껌의 향기는 야마노테선의 전차 안까지 퍼졌었다. 주변의 주부들은 종이박스에 껌이나 카라멜을 넣어 자택에 가져와 작은 포장지에 싸는 일을 했다. 점점 한국 사람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오오쿠보거리를 둘러싸며 카부키쵸 방면으로 향하는 지역에는 제주도로부터 이주해 온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 함께 살아가는 마을 ◇

오오쿠보역 근처에 있는 요도바시교회는 미국의 교회와 같이 소박하면서도 새로운 광경을 자아냈다. 옥수수 밭이 풍성한 가운데 3살이 된 나는 일요일에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다녔었다. 적국이었던 미국은 이제는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이웃이 되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주해 왔었다. 지금의 문화거리 근처에 있었던 그 집은 미국풍의 부엌문에 망사문이 달려 있었고 천정이 높은 우아한 집이었다. 나는 영어로 말을 걸어 보고 싶어서 그 집의 문

⁴ 오나가도리(尾長鳥)

일본 고유의 닭의 한 품종.

⁵ 하시고춤(はしご踊り)

일본의 전통적인 소방수들의 춤으로서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춤.

을 두드려, 친구가 되었고 애 보는 일을 자청하기도 하였다. 가족 전체가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다.

“귀축미군(鬼畜米兵⁶)”과도 같은 시대는 코페르쿠니스적 전환⁷ 과도 같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마을은 부흥과 함께 평화의 마음이 퍼져 적과 아군이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즐거운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서 전쟁후의 황야와 부흥을 향한 신오오쿠보의 옛 풍경의 한 장면을 그려내 보았다. 라이프 스타일에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신쥬쿠의 역사서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사실, 보지 못했던 사실, 지역 주민들의 본심까지도 눈에 보이듯이 그려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 온 한국의 학생에게 이와 같은 정겨운 풍경을 이야기 해준 적이 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면서 고령자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에 감동하고 있었다.

희로애락이 들려오는 듯한 생활사 속에서, 시대에 휩쓸려 가면서도 스스로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기개와 주체성을 느껴졌다.

지역의 재생과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스피드에 놀라면서도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의 중요성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흘러 퍼져, 그것이 마을의 유래가 되어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⁶ 귀축미군(鬼畜米兵)

제 2 차세계대전 중에 일본국내에 퍼진 일종의 슬로건과 같은 것으로 미군은 여자는 강간하며 남자는 죽인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⁷ 코페르쿠니스적 전환

코페루쿠니스가 그 때까지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세상의 상식을 깨고 지동설을 주장한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사상이 180 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キーワード / 키워드 1>

ナラティブ理論

河合優子

人が存在するところにはナラティブ（物語）が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フランスの思想家ロラン・バルトは、ナラティブは「どの時代にも、どこでも、そしてどんな社会にも存在」し、「人類の歴史の始まりと同時に存在していた」と主張しています（Barthes, 1975, P. 237）。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者のフィッシャーは、人間を「物語る動物（Homo-Narrans）」と定義し、人はナラティブを通して現実世界を理解すると述べています（Fisher, 1984）。

人は、子どもの頃には、童話やアニメとともに成長し、大人になってからも小説、映画、ドラマといったナラティブとともに生きていきます。さらに、職場で同僚と口論になった経緯を家族に詳しく語るとき、落ち込んでいる友人からそのいきさつを聞くときの「経緯」や「いきさつ」もナラティブとして語られます。このように、自分が生きる世界だけでなく、異なる世界で生きる人びとのことも、ナラティブを通して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ナラティブは、多様な文化、年齢、教育背景の人びとにとって、身近で理解しやすいものであると言えます。

ナラティブは、人文・社会科学において、特に1980年代以降、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幅広い学問領域で理論的概念および分析方法として使われてきました（Riessman, 2008）。したがって、ナラティブの定義には様々なものがあります。しかし、広く定義すれば、2つ以上の出来事が、関連した、連続性のあることとして語られること、と言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しかし、常に出来事Aと出来事Bが連続して語られるわけではなく、出来事AとBの間にCを入れて語られることで違う印象を与える話になったりします。例えば、「韓国の大学で経済学を専攻し、日本経済について学んだ」「日本に留学した」という2つの出来事があったとします。この2つの出来事だけが語られたのであれば、「日本経済を学んだから日本に留学した」となります。しかし、「日本の大学院から奨学金をもらった」、さらに「アメリカの大学院へ行くことも考えていた」という出来事が、この間に語られると、少し違ったナラティブになります。

では何のために人は「物語る」のでしょうか。主要な目的の一つが、過去の経験の記憶です。経験が存在するというよりは、「物語る」という行為によって経験はつくられるのです（野家、2005）。

人生においてはさまざまな出来事が起こりますが、そのままでは、割れたガラスの破片のように無形であり、混沌としています。人はそのようなさまざまな出来事をつなぎあわせることで経験（＝ナラティブ）として記憶します。しかし、すべての出来事が経験を構成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ある出来事は別の出来事とつなげられることなく、人生の経験の一部とならず忘却される、もしくは語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ある人の人生において、関連性のあるものとして語られた過去の出来事の集合体、つまり、ナラティブ（＝経験）は、同時に、その人が誰であるかという意味、つまりアイデンティティを表すものでもあります。

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というナラティブから、語り手の生きる世界やアイデンティティを垣間見ることになります。さらに、このプロジェクトでは、多様な世代の日韓の研究者がインタビューにあたりました。よって、ここで語られた人生は、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人たちと研究者の共同作業によるナラティブであり、語り手の人生の一面に過ぎ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それでもこれを読んだ方には、新宿の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顔」が、以前より少しはっきりと見えてく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引用文献

Barthes, R. (1975).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New Literary History*, 6(2), 237-272.

Fisher, W. R. (1984). Narration as a human communication paradigm: The case of public moral argument. *Communication Monographs*, 51, 1-22.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野家啓一（2005）『物語の哲学』岩波現代文庫

（初出：『記録集 1』2010年5月）

내러티브 이론

카와이 유코 (河合優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내러티브(이야기)가 존재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로렌발트는 내러티브가 “어떠한 시대, 장소, 그리고 사회에도 존재하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BArtHes,1975,P.237).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피셔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Homo-Narrans)”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람은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세계를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Fisher, 1984) .

인간은 어릴 적에는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접하며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소설, 영화, 드라마와 같은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와 다룬 경위를 가족에게 자세히 이야기 하는 경우나 풀이 죽어있는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경위” 또는 “경과” 를 내러티브로서 듣게 됩니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통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다양한 문화, 세대,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밀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 받기 시작하여 폭넓은 학문 영역에서 이론적인 개념 또는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Riessman,2008) . 때문에 내러티브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연속성과 관련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건A와 사건B를 항상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A와 사건B사이에 C를 넣어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진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일본경제에 대해서 배웠다”, “일본에 유학왔다” 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이 두 개의 사건만을 본다면 “일본경제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왔다” 라는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미국의 대학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다” 라는 사건이 그 중간에 이야기되어지면 조

금 틀린 내러티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과거 경험의 기억입니다. 경험이 존재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통해 경험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野家, 2005) . 사람의 인생중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깨어진 유리의 파편처럼 무형의 혼돈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여러가지 사건들을 끼워 맞추으로써 경험(내러티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경험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인생 경험의 한 일부로서 잊혀져 가거나 이야기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 과거 사건의 집합체 즉 내러티브(경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의미와 동시에, 말하자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분들의 라이프스토리라는 내러티브로 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세계나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엿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세대의 한일 연구자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인생은 새로이 이주해 오신 한국분들과 한일 연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내러티브이며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읽은 분들은 신쥬쿠에 이주해 오신 한국분들의 “얼굴”이 전보다 조금은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요?

인용문헌

Barthes, R. (1975). An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New Literary History*, 6 (2), 237-272.

Fisher, W. R. (1984). Narration as a human communication paradigm: The case of public moral argument. *Communication Monographs*, 51, 1-22.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野家啓一 (2005) 『物語の哲学』 岩波現代文庫

(초판 : 『기록집 1』 2010 년 5 월)

人生に寄りそうライフサイクル論

川村千鶴子

ライフヒストリーの物語<ナラティブ>に耳を傾けることは、他者の「人生」に寄り添うことであり、想像を逞しくして、その人生を共有することにもなります。国境を越える人々の体験には、さまざまな困難が伴いますが、それらの克服の過程からは、その人の精神発達や人格的な成長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ます。

アイデンティティを学問的に概念づけたエリック・H・エリクソンは、人の精神発達や人格発達といったことは、生まれてから死ぬまでの長い人間の生涯全体のテーマであることに着目しました。鏑幹八郎によれば、エリクソンの発達論の有効性とその重要な意義は、人間生涯の展望の中で発達をとらえたことにあり、これをエリクソンは、「ライフサイクル論」と呼んでいるのです。

人の移動と人間発達、そしてライフサイクルに視座をもち、出産・保育・教育・就労・定住・医療・老後の現場のアクチュアリティに迫ってみると「よくがんばっているなあ」という共感が沸いてきます。街の表層からは、見えなかった部分、つまりそれぞれの移動に伴う親密的な世界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ね。

たとえば、多文化・多民族の妊娠と出産とケア、保育園空間から創出される協働の世界、外国系児童 6 割の公立小学校と言語施策など、人間発達と移住とは大きな関わり合いがあることが認識できます。それに、日本語学校のこと、留学のこと、エスニック・ビジネスの起業と展開、まちづくりへの参画などを聴いているとわくわくするような自己実現のプロセスを感じることもあります。新宿はこうした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現象を先進性をもって明示してくれる「多文化の磁場」でもあります。

このように人のライフサイクルにそって人間発達をみてみると実に多くの共通テーマが存在します。妊娠・出産・子育て、受験と塾、留学、学生生活とアルバイト、恋愛と家族、就職と起業、結婚と離婚、嫁と姑、親戚付き合い、信仰と祈り、介護と老後の幸せ、葬儀のお墓など生から死へのライフステージです。ライフサイクルの過程には、「ケア」の概念が潤滑油のような

役割をもっていることも感じられます。ケアワークの負担をだれが担っているのかといったジェンダーの視点も生まれてきます。家族という親密圏のなかでの「市民」とは何かという政治性も感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もっとも新宿に定住する者もあれば、通過点としてさらに海外に拡散する場合があ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新宿」は第二の故郷（ふるさと）となっているのですね。

このように人生に寄り添うことの効果は絶大です。ライフサイクル論は、多元価値社会での分断を防ぐ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貧富の格差、民族の格差、障害の有無による格差など、社会の分断を防ぐうえで、お互いの顔が見える関係性を築いていく努力は、大切なことだと感じています。

参考文献

- 鏑 幹八郎（たたら みきはちろう）著『アイデンティティとライフサイクル論』2002 年、ナカニシヤ出版
斎藤純一著『親密圏のポリティクス』2003 年、ナカニシヤ出版
川村千鶴子編著『多民族共生の街・新宿の底力』1998 年、明石書店
川村千鶴子、近藤敦、中本博皓編著『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2009 年、明石書店

（初出：『記録集 2』2010 年 9 月）

인생에 동행하는 라이프 사이클론

카와무라 치즈코 (川村千鶴子)

라이프 히스토리의 이야기<내러티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타인의 삶의 곁에 다가가는 것과도 같으며, 상상력을 강하게도 하며 그 인생을 공유하게도 합니다. 국경을 건너와 생활하는 사람들의 체험담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의 정신적인 발달이나 인격의 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릭.H.에릭슨은 아이덴티티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한 사람입니다만, 그는 사람의 정신발달이나 인격발달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에 걸친 테마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타타라 미키하치로우 (鑓幹八郎)에 의하면 에릭슨의 발달론의 유효성과 중요한 의의(意義)는 인간의 삶 전체에 걸친 발달을 다룬 점에 있으며 에릭슨은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론(論)”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移動)과 인간발달 그리고 라이프사이클에 초점을 두고 출산, 보육, 교육, 취직, 정주(定住), 의료, 노후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들여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걸모습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즉 가지각색의 이동(移動)과 함께 하는 친밀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문화/다민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보육원으로부터 창출되는 협력의 세계, 외국인 아동이 60%를 차지하는 공립초등학교와 언어정책 등, 인간발달과 이동은 서로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어학교에서의 이야기, 유학중의 이야기, 에스닉(ethnic)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전개하는 것, 마치즈쿠리(지역사회활성화)에 참가하는 것 등, 듣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러한 자기실현의 과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쥬쿠(新宿)는 이러한 다국적 교류의 현상을 선진적으로 보여주는 “다문화의 자기장(磁氣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서 인간발달을 보면, 실로 많은 공통 주제가 존재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수험과 학원, 유학,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연애와 가족, 취

직과 기업(起業), 결혼과 이혼, 며느리와 시어머니, 친척과의 교제, 신앙과 기도, 간병과 노후의 행복, 장례후의 묘지 등 생에서 죽음까지의 인생무대입니다. 라이프사이클의 과정에는, 「CARE」의 개념이 윤회유와 같은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살피는 일의 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 라는 젠더(Gender)에 관련된 시점도 생겨납니다. 가족이라는 친밀권 안에서의 「시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치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쥬쿠에 정주해서 사는 분도 있지만, 이곳을 통과지점으로 삼아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쥬쿠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함께 동행해 나아간다는 것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라이프사이클론(論)은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민족의 격차, 장애의 유무에 따른 격차 등,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서로간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鑓 幹八郎 (타타라 미키하치로우) 著『アイデンティティとライフサイクル論』2002년、ナカニシヤ출판

斎藤純一(사이토 준이치)著『親密圏のポリティクス』2003년、ナカニシヤ출판

川村千鶴子編(카와무라 치즈코)著『多民族共生の街・新宿の底力』1998년、明石書店

川村千鶴子(카와하라치즈코)、近藤敦(곤도 아츠시)、中本博皓(나카모토 히로쓰구)編著『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2009년、明石書店

(초판 : 『기록집 2』 2010년 9월)

言語景観 (Linguistic landscape)

藤田ラウンド 幸世

言語景観は多言語的背景を持つ景観のことです。社会言語学においては、ここ 10 年の間に「言語景観(Linguistic landscape)」の概念が広がり、言語景観のアプローチから世界各地の多言語状況が新たな視点で映し出されつつあります。

言語景観に関しては、Landry & Bourhis (1997:25) は「特定の領域、あるいは地域の公共的・商業的表示における言語の可視性と顕著性」が、「道路標識、広告掲示板、街路名、店の商業看板、そして行政政府の建物などに表出された標識が、その地方行政区、州、または近代の都市特有の凝縮した塊として形成されている」と定義しました(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 2009; Shohamy & Gorter 2009; Sebba and Zabrodskaia 2010)。

Landry & Bourhis の上記の定義を出発点に、言語景観の研究が進むにつれて、「凝縮した塊(agglomeration)」を読み解くためには、二言語併用や多言語併用の状況の中で「言語の可視性と顕著性」を見るための対象メディアが、「標識、看板、広告」から、看板や広告がさらに流動的な媒体、お店のポスター、ビラ、チラシ、切符に拡がり、言語の分析においても、流動的な媒体の上に印刷された「固定された記号(fixed signage)」や標識以外の公的空間に現れた記号としての文字の表出というような広がりを見せています(Shohamy & Gorter 2009; Sebba and Zabrodskaia 2010)。近代都市の環境の中に、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どのように多言語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かを追求しているものです。

第 18 回社会言語学シンポジウムでは、'Signs in context: multilingual texts in semiotic space(文脈の中の記号：記号論的多言語空間における多言語で印刷されたテキスト(筆者訳)'という題名でグループ発表がありました。具体的には、エストニアにおけるロシア語、英語、フィンランド語、フランス語の多言語の看板や商業広告、台湾における台湾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わる中国語の簡体

字・繁体字表記、ローマ字表記、英語、フランス語、日本語の指標性、エチオピアの地域都市における現地語と公用語であるアムハラ語、また英語との混在状況、南アフリカにおける黒人地域の消費者を意識したコマーシャルや商業広告の中に現れる多言語の混在、フィンランドの都市、ヘルシンキと周辺地方における英語とフィンランドの混ざり方の比較など、それぞれの国の公共標識、看板や広告、観光スポットでの多言語状況が具体例とともに報告されました。一方で、すでに二言語使用が定着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カナダのモンリオール(フランス語と英語)やベルギーのブリュッセル(フランス語とフラマン語)の比較の中で、本来の二言語が厳密に実行されている地域と、そうではない地域、そのズレが都市計画や地域の成り立ちに実際には深く関わるといった、多言語に拡がるだけではなく、逆の軸、二言語使用という前提がありながら一言語が優位に立つ状況の報告もありました。二言語・多言語状況(バイリンガリズム・マルチリンガリズム)と社会との「融合」や「境界」の模索を分析していると言って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

言語景観のいずれの研究も「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キーワードとなっています。実際に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いう国際化が国内の民族間、歴史上の多言語性などの歴史的要素と近年の経済的要素による移民言語の力関係にどのように影響を与えたか、こうした複雑な状況を言語上から読み解くといって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また、先のグループ発表後の全体討論では、言語景観の中に新たな新語が生み出されている可能性も指摘されました。これは、社会言語学の分野らしい視点ともいえます。例えば日本の外来語もそうですが通常意識することではなく生活の中で実際に使用される中で現地の人々が「英語」だと思っている語彙が、実はそれは英語としては通じないばかりか現地語とな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といった発表事例に見られた文字表記や新語に結実している言語的創造性が指摘されたものです。

まさに、言語景観から見えてくるものは、「言語の『都市景観』であり、多言語的背景をもつ景観(クルマス 2009:81)」だといえるでしょう。そして、言語景観は、各地により多言語の背景がそれぞれ異なり、また多言語の表出が時間により移り変わ

るものだともいえます。言語景観だけで、背景となる全ての文脈を映し出せ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が、切り取った景観の中に、その時間の中に埋め込まれた、文字記号・音声上・非言語も含めた「言語」を分析することができます。言語景観の中には、「言語」以外にも、多言語・多文化・多民族の力関係や歴史的事実も浮き彫り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日本の二言語・多言語状況に関わる言語景観は生活レベルで具現された言語表記を言語景観に見るという試みを、バックハウス(2009:147)が行政的背景として行った東京都の多言語表記の指針をもとにした事例や「日本」の言語景観について、庄司・バックハウス・クルマス(2009:10)らが日本の言語景観に関わる言語景観から言語と社会の複雑な関わりを可視化する要素として引き出した、「西欧化」、「国際化」、「多民族化」の概念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これからの日本の言語景観の流れを作っているといえます。また、バイリンガリズム・マルティリンガリズムからのアプローチから、Fujita-Round and Maher (2008:393-404)らが、言語教育政策をたどり、近代化の中で日本が進めた「国際化」に関する記述も、こうした日本の言語景観につながるものだと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ます。

言語景観は、文字表記や新語として、多言語が融合した「言語的創造性」を通して多文化・多民族・多言語が共存する環境を映し出すでしょう。過去と未来につながる「現在」を切り取る一つのアプローチとして、言語景観は可能性を秘めた研究手法・概念を提供するものでしょう。

参考文献

ペート・バックハウス (2009)「第 6 章 日本の言語景観の行政的背景」, 庄司博史、ペート・バックハウス、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pp. 145-170
フロリアン・クルマス(2009)「第 3 章 言語景観と公共圏の起源」, 庄司博史、ペート・バックハウス、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pp. 79-94
庄司博史、ペート・バックハウス、フロリアン・クルマス編著 (2009)『日本の言語景観』三元社
Fujita-Round, S. and Maher, J. C. (2008)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Japan’ in S, May & N,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Volume 1. NY: Springer, pp.393-404

Sebba, M. and Zabrodskaia, A. (Chairs) (2010) ‘Signs in context: multilingual texts in semiotic space’, in The Abstracts of Sociolinguistic Symposium 18: Negotiating transnational space and multilingual encounters, University of Southampton, 1-4 September 2010, pp.141-145

Shohamy, E. and Gorter, D. (eds.) (2009) *Linguistic Landscape: Expanding the Scenery*. NY: Routledge

Landry, R. and Bourhis, R. Y. (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 pp. 23-49

(初出：『中間報告書』2010年10月)

언어경관 (Linguistic landscape)

후지타라운도 사치요 (藤田ラウンド 幸世)

언어경관이란 다언어적 배경을 지닌 경관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 언어학에서는 근래 10년간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의 개념이 확대되어, 언어경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세계 각지의 다언어상황이 새로운 시점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중이다.

언어경관에 관해서, Landry & Bourhis (1997:25)는 「특정영역, 또는 지역의 공공적·상업적표시에 있어서의 언어 가시성과 현저성」이 「도로표식, 광고게시판, 가로명, 상점의 상업간판, 그리고 행정정부의 건물등에 표출된 표식이 그 지방행정, 주, 또는 근대의 도시특유의 응축된 덩어리로서 형성되어져 있다」고 정의했다 (쇼우지(庄司)・Peter Backhaus・Florian Coulmas 2009; Shohamy & Gorter 2009; Sebba and Zabrodskaia 2010).

Landry & Bourhis는 위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언어경관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응축된 덩어리(agglomeration)」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두언어병용이나 다언어병용의 상황속에서 「언어의 가시성과 현저성」을 보기위한 대상 미디어가 「표식, 간판, 광고」에서 간판이나 광고가 더욱 유동적인 매체, 상점의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 승차권까지 확대되어, 언어의 분석에 있어서도 유동적 매체상에 인쇄된 「고정된 기호(fixed signage)」나 표식 이외의 공적공간에 나타난 기호로서의 문자의 표출과 같은 광범위함을 보여주고 있다. (Shohamy & Gorter 2009; Sebba and Zabrodskaia 2010). 근대 도시 환경속에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어떻게 다언어로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18회 사회언어학 심포지엄에서는 'Signs in context: multilingual texts in semiotic space(문맥중의 기호 : 기호론적 다언어공간에 있어서 다언어로 인쇄된 교재 (필자역))'이라는 제목으로 그룹발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토니아(Estonia)에 있어서의 러시아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의 다언어간판이나 상업광고, 대만에 있어서의 대만 아이덴티티에 관계된 중국어의 간체자(簡体字)・번체자(繁体字)표기, 로마자 표기,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의 지표성, 에티오피아(Ethiopia)의 지역도시에서의 현지어와 공용어인 암하라 어(Amhara語) 또는 영어와 혼재상황, 남아프리카에 있어서 흑인지역의 소비자를 의식한 광고나 상업광고중에 나타나는 다언어의 혼재, 핀란드의 도시 헬싱키와 주변지방의 영어와 핀란드의 혼합방법의 비교 등, 각국의 공공표식, 간판이나 광고, 관광에서의 다언어상황이 구체적인 예와 함께 보고 되었다. 한편에서는, 이미 두언어 사용이 정착되었다고 생각 되어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프랑스어와 영어)이나 벨기에의 브뤼셀(프랑스어와 플라망어Flamand語)의 비교 중에서, 본래의 두언어가 엄밀히 실행 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 차이가 도시계획이나 지역의 성립에 실제로는 깊이 관계된다는 것 등, 다언어에만 확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측인 두 언어사용이라는 전제가 있으면서 한 언어가 우위에 서는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두 언어・다 언어상황(Bilingualism・multilingualism)과 사회와의 「융합」이나 「경계」의 모색을 분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언어경관에 대한 어느쪽 연구도 「세계화」가 키워드이다. 실제로는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국제화가 국내의 민족간, 역사상의 다언어성 등 역사적요소와 최근의 경제적 요소에 의한 이민언어의 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복잡한 상황을 언어상으로 해독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앞선 그룹 발표 후의 전체 토론에서는 언어경관중에 새로운 신어(新語)가 생겨나고 있는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이것은, 사회언어학 분야다운 시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예를들어 일본의 외래어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의식되지 못한채 생활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현지 사람이 「영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휘가, 실은 그것은 영어로서는 통하지 않을뿐더러 현지어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발표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자표기나 신어로 결실되어진 언어적창조성이 지적된 것이다.

정말로, 언어경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언어의 『도시경관』이며, 다언어적 배경을 가진 경관(Florian Coulmas 2009:8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경관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언어의 배경이 각각 다르며, 또한 다언어의 표출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경관만으로 배경이 되는 모든 문맥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것은 불가하지만, 잘라낸 경관중에는 그 시간속에 메워진 문자지호·음성상·비언어도 포함된「언어」를 분석할 수 있다. 언어경관 중에는 「언어」 이외에도, 다언어·다문화·다민족의 힘의 관계나 역사적인 사실도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두 언어·다 언어상황에 관한 언어정책 중예, 생활수준에서 구현된 언어표기를 언어경관으로 보는 시도를 Peter Backhaus (2009:147)가 행정적인 배경으로서 행한 동경도의 다언어표기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 사례나 「일본」의 언어경관에 대해서 쇼유지(庄司)·Peter Backhaus·Florian Coulmas(2009 : 10)가 일본의 언어경관에 관련된 언어경관에서 언어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가시화하는 요소로서 끌어낸 「서구화」, 「국제화」, 「다민족화」의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본의 언어경관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ilingualism·multilingualism의 접근방식으로, Fujita-Round and Maher (2008 : 393-404)가 언어교육정책을 더듬어 가서, 근대화 속에서 일본이 진행한「국제화」에 관한 기술도, 이러한 일본의 언어경관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언어경관은, 문자표기나 신어로서, 다언어가 융합한 「언어적창조성」을 통한 다문화·다민족·다언어가 공존하는 환경을 낼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는 「현재」를 잘라내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언어경관은 가능성을 감춘 연구수법·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Peter Backhaus (2009) 「제6장 일본의 언어경관의 행정적배경」, 쇼유지히로시, Peter Backhaus·Florian Coulmas편저 『일본의 언어

경관』三元社, pp. 145-170

Florian Coulmas (2009) 「제3장 언어경관과 공공권의 기원」 쇼유지히로시 (庄司博史) Peter Backhaus·Florian Coulmas편저 『일본의 언어경관』三元社, pp. 79-94

쇼유지히로시 (庄司博史)·Peter Backhaus·Florian Coulmas 편저 (2009) 『일본의 언어경관』三元社

Fujita-Round, S. and Maher, J. C. (2008)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Japan' in S, May & N,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Volume 1. NY: Springer, pp.393-404

Sebba, M. and Zabrodskaja, A. (Chairs) (2010) 'Signs in context: multilingual texts in semiotic space', in The Abstracts of Sociolinguistic Symposium 18: Negotiatingtransnational space and multilingual encounters, Univeristy of Southhampton, 1-4 September 2010, pp.141-145

Shohamy, E. and Gorter, D. (eds.) (2009) *Linguistic Landscape: Expanding the Scenery*. NY: Routledg

Landry, R. and Bourhis, R. Y. (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 pp. 23-49

(초판 : 『중간보고서』 2010 년 10 월)